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21 Korea Hanok Competition

진행과정

공모 공고

2021. 6. 23.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2021. 9. 13. ~ 9. 15.

심사

준공부문

1차: 9.23~9.30, 10.17 / 2차: 10.22, 23, 27

계획부문

1차: 9.23~9.30, 10.17 / 2차: 11.1

사진 및 영상부문

1차: 9.23~10.4, 10.17 / 2차: 10.26

시상식

2021. 11. 25.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

전시회

2022년 3월 9일(수) ~ 3월 13일(일) KTX 오송역사

2022년 3월 15일(화) ~ 3월 20일(일) 수원 한옥기술전시관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作品集

발행처 | 국토교통부

전화 | 044,201,3783

팩스 | 044,201,5574

인쇄일 | 2022년 3월 18일

발행일 | 2022년 3월 18일

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044,417,9600)

편집·인쇄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2022©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운영 및 심사위원

국립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연상 교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류성룡 교수

건축사사무소 에스에프랩

최무규 대표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월간 DECO

여인우 작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추덕담 프로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건축공간연구원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늘의 경관을 넘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

한옥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 그들의 시간 등을 담고 있는 건축을 말하는데, 삶의 여건과 방식,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규모로 나타난다. 과거 사람들은 한옥에 보편적 가치와 그들만의 세계를 구현한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만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 가족, 한 마을, 한 도시, 더 나아가 한 민족과 한 나라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된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나 미래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한옥은 내외부의 다양한 요소와 또 다른 한옥과 상호감응을 통해 성장한다.

인간은 공간과 사물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감성과 이성으로 인지하고 사유하는데, 경관은 인간이 체험하는 대상으로 육체를 통해 정신세계로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이다. 인간과 대상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단순한 사물이, 자연의 풍경이 인간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경관이 된다. 더 나아가 경관은 짧은 시간을 지나며 개인의 경관이 되고, 긴 시간을 지나며 공공의 경관이 된다. 경관의 대상은 나무와 돌 등 자연계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은 한옥, 마을의 골목, 도심 가로 등 다양하다.

경관은 대상이 있고 이런 경관을 만드는 연출자와 이를 취하는 관찰자가 있다. 이 경관은 관찰자의 바라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시간은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바꿔 놓는다. 누군가는 시간을 낮과 밤, 아침과 점심과 저녁,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한 사람의 일생, 여러 세대 등을 고려한 경관을 취할 수 있는 한옥을 만들고 자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존 한옥의 재생을 통하여 내외부에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한옥을 만들고, 더 나아가 다른 시간의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경관이 되는 한옥을 만들고자 한다.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위원장 심사평	4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8
올해의 한옥상	14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34
	금상	36
	은상	38
	동상	40
	입선	42
청소년	금상	48
	은상	50
	동상	52
	입선	54

계획부문

대상	58
특별상	62
금상	66
은상	70
동상	78
입선	84

영상부문

대상	106
금상	108
은상	110
동상	112
입선	114

심사위원장 심사평



2021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주제는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였습니다. 한옥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 그들의 시간 등을 담고 있는 건축으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지나 미래로 통해야 합니다. 독립된 단위 건물 이외에도 외부의 다양한 요소와,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한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런 한옥은 인간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감성과 이성으로 인지하고 사유할 때, 단순한 조형물이나 건물이 아닌 인간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경관이 되어 한 마을, 한 도시의 경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공간 이용자의 관점과 시점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여 내외부에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이를 품을 수 있는 한옥을 찾고자 했고,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경관이 되는 한옥을 찾고자 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건축 계획부문과 준공부문, 사진부문(일반부문, 청소년부문), 영상부문의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부문에서는 단일 건축물로서 한옥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건축과 환경에 있을 때 한옥의 의미와 가치, 상호 유기적 관계, 더 나아가 한옥이 만들어내는 경관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출품자격은 제한하지 않았지만 설계도서의 작성, 모형 제작 및 발표를 수행해야 하는 계획부문에는 주로 건축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준공부문은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 건축양식의 건물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공기기준일 사이에 준공 완료된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대목장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부문과 영상부문은 일반부문과 청소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옥과 관련 자유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출품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계획부문에는 총 44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별한 후,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화상 종합심사를 거쳐 2차 심사대상 23작품을 선정했습니다. 2차 심사는 2021년 11월 1일 작품별 모형 설명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10분 내외)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위원별 평가점수 종합 및 토론을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본상 8작품 및 입선 10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위원장 국립안동대학교 정연상 교수, 위원 고려대학교 류성룡 교수, 건축사사무소 에스에프랩 최무규 대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 5인이 참여했습니다. 계획부문의 작품들은 제시한 주제를 고려해 주변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현대적 한옥, 미래 지향적인 한옥, 도심의 공공성 등을 대부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출품 작품들은 기존 한옥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응용 및 해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 및 유형의 한옥, 단층의 단일 건물을 넘어 새로운 한식의 중층 목조건축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한옥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부문 대상을 받은 ‘상상루(上相樓)’는 그동안 연구 개발한 신한옥 결구법을 이용한 트위스트 매스와 한옥의 목가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기법 등을 활용하여 다층 한옥 상업 공간을 제시한 작품이며, 또한 오늘날 도심 내 단순한 단일 건물을 넘어 내일의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전통한옥을 구성하는 경관 요소를 현대적 경관으로 해석하고 디자인한 작품으로서 한옥의 해석 및 디자인의 창의성이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계획부문 특별상은 “장공로(匠公路)-창신동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일상을 한옥으로 담다”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 대지의 형태와 주변 환경, 현대 도시의 사회적 구조와 지리적 경관 등의 가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재해석한 복합건물로 기존 한옥의 형태적 구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한옥 구법과 현대한옥 디자인 방법론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계획부문 금상은 “한-옥 2050”으로,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경관 디자인 및 표현 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형태 및 재료를 재해석 디자인한 고층 중목구조건축과 전통 한식 목구조가 결합한 복합구조의 건물로 짜임새 있는 내부공간 및 외부 형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외 은상 “未化: 행궁동에 변화를 가져오다”는 공방 예술가와 주민들을 위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역사문화도시에 새로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했고, “우리의 삶, 우리의 거리, 우리의 경관”은 역사문화유산 인근 도심의 크고 작은 길을 분석하여 내일의 경관이 될 수 있으면서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한옥을 제시했습니다. 동상은 “푸실(풀이 우거진 마을)”과 “과거를 걷고 현재를 마주하다”, “동심원 효과: 목포 구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3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준공부문은 12작품을 접수하여 심사위원 개별심사 후 위원 간 토의를 통해 1차로 우수작품을 선발하였고, 준공된 한옥을 방문하는 2차 현장심사를 3일(10월 22일, 23일, 27일)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준공부문 작품은 올해의 한옥대상 1작품, 올해의 한옥상 2작품, 올해의 공공한옥상 1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은 계획부문과 같으며, 작품은 배경 및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2021년 한옥공모전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하이브리드 한옥의 조용한 실험, 하동 한옥문화관”은 하이브리드 한옥과 전통 한옥이 결합된 한옥숙박시설로 대지와 주변 환경 및 경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문지리적 경관과 자연지리적 경관이 잘 표현된 건축 공간과 구조 및 가구 계획, 마감부 디테일 등의 독창성이 탁월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한옥상을 수상한 “체부동 한옥” 작품은 전형적인 도심의 협소한 대지 구조와 환경을 해석하여 젊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 도심형 한옥으로 실용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간계획과 협소 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목구조계획이 독창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빨래터 세심이:집”은 도심의 역사문화공간을 직접 면하고 있는 대지의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와 공존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는 도심형 현대한옥으로 현대인의 삶과 마음의 안식을 위한 절제된 내부 공간계획이 돋보였으며, 특히 내부공간과 외부의 문화유산이 상호 관입 되도록 한 경관계획이 독창적인 작품으로 미래 문화유산의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의 공공한옥상을 수상한 “서울 정수초등학교 한옥교실”은 내구성과 실내환경 성능을 고려한 한옥기술개발 R&D의 프리패브 벽체 등 신기술을 적용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원 전체의 조영 과정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공간의 주된 이용자인 초등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공간 및 구조, 비례 등을 계획한 한옥교실로 한옥의 조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한 작품이었으며, 한옥문화와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기회를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전 준공부문 출품작은 일반인 참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한옥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작품 참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출품작품들은 기존의 한옥이 지닌 구조적 문제와 미완의 공간계획을 뛰어넘어 현대인의 삶과 문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부문은 총 226건으로 일반인 212건, 청소년 14건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영상부문은 총 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은 계획부문과 동일하게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작품을 선별하였고, 10월 26일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사진 일반부문에서는 본상 6작품과 입선 10작품이 선정되었고, 청소년부문은 본상 5작품과 입선 2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위원장 국립안동대학교 정연상 교수, 위원 월간 SPACE 윤준환 작가, 월간 DECO 저널 여인우 작가, EBS 추덕담 PD, 국토교통부 박기범 과장,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진부문 대상은 “소나기와 고택”으로 대구 달성군 한현당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옥이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대상임을 잘 보여주었으며 기존의 형식화된 한옥 사진의 미학을 넘어서려는 시선과 의지가 돋보인 작품으로, 특히 한옥의 시간과 경관의 요소로서 소나기를 잘 담아냈다는 점에서 한옥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상 “여름의 끝자락”은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한옥의 목구조 및 세부 구조재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건축물로서 한옥이 지닌 실내와 실외가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공간 미학적 요소들을 정확하고 수려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청소년 사진부문 금상 “여름날의 풍경”은 경북 경주 옥산서원 동락당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한옥이 주는 공간감 또는 무게감보다는 움직임의 시각으로, 건축물 자체보다는 공간이용자의 일상적인 삶을 담은 한옥, 그리고 한옥 주변의 환경 및 경관까지 아우르는 시각을 보여주는 새롭고 신선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외 일반인부문과 청소년부문의 은상과 동상 수상작 또한 한옥의 공간 미학적 관점, 한옥이 품고 있는 외부 경관과 내면세계를 표현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영상부문도 1차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선별작품을 2차 현장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함께 시청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본상 6작품, 입선 9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상부문 대상인 “한옥으로(路)”는 전국의 유명한 한옥과 풍경을 찾아 나선 로드 다큐멘터리형식의 동영상 작품으로 제작자의 노력과 정성이 돋보였으며, 시대별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여 시대별로 새롭게 해석되고 사랑받는 한옥의 느낌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상 “한옥의 멋”은 래퍼가 랩의 리듬과 가사로 한옥의 구조와 멋스러움을 소개하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이며, 랩과 한옥이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를 결합한 실험성과 재미로 한옥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이외 은상과 동상 수상작은 한옥의 일상, 삶, 휴식, 시간을 담아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축과 사진 및 영상부문에서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들이 2021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응모하였고, 이에 한옥공모전 심사위원 및 관계자는 공모전 참여자들의 한옥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큰 관심은 한옥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으며, 그 열정의 답으로 모두에게 시상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젊은 한옥 관련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계획부문은 현재와 같이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옥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심사위원 일동은 현재까지 한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2022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다양한 작품을 기다립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심사위원장 정연상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준공부문



하이브리드 한옥의 조용한 실험, 하동 한옥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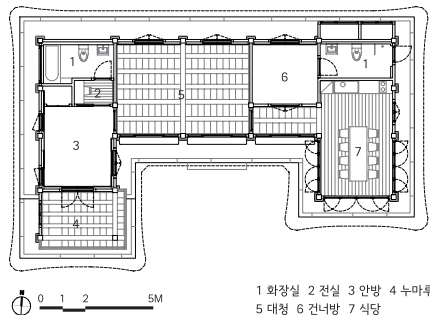
하동 한옥문화관은 하동군 평사리 최참판댁 뒤편에 자리한 한옥숙박시설이다. 멀리 남쪽으로 섬진강과 평사리 평야가 보이는 경사지로, 대지를 둘러싸고 동, 서 그리고 북쪽으로 가깝고 먼 산들로 둘러싸인 자연경관이 뛰어난 땅이다.

숙박동, 수평적 서사와 수직적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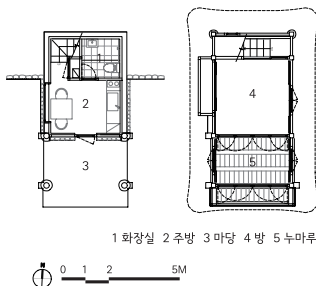
안채의 경우, 안방과 누마루, 마당과 대청, 개방적인 식당 등 수평으로 펼쳐진 하나의 평면에서 체험자는 공간을 이동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간과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별채는 작지만 '수직적인 서사구조'로 계획하였다. 누마루 아래로 들어와, 주방을 지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면, 그 위에는 한지로 싸인 단출한 방과 앞에 딸린 누마루가 보인다. 누마루에 올라서면 대지 레벨에서는 볼 수 없던 하동의 풍광이 펼쳐지며 체험자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휴가분한 느낌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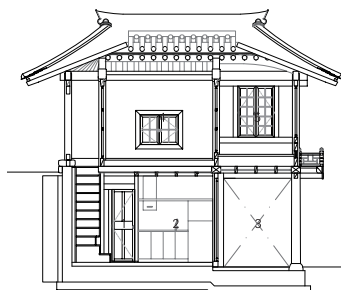
안채 평면도



별채 평면도



종 단면도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설계자 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조정구

건축주 하동군청

시공자 (주)아라한건설 이성준

대지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대지면적 1317㎡

건축면적 341.48㎡

연면적 394.08㎡

구조 4개동, 지상 1층/지하1층

규모 한식 목구조 및 일반
목조(지상)
철근 콘크리트조(지하)

용도 문화및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안채 식당



안채 대청



안채 안방에서 바라본 누마루

숙박동, 세가지 유형의 한옥을 제안하다

안채는 가족이나 수행원과 함께 오는 vip 손님을 위해 계획되어, 독립된 방과 욕실을 두고 마당과 대청, 개방적인 식당과 주방 등 비교적 여유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계획하였다.

사랑채는 모임에 적합한 주방과 식당을 두고, 남쪽으로 박공을 뺀 지붕 아래 평상과 쪽마루를 두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과 햇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안채 뒤편 양쪽으로 지어진 두 채의 별채는 작은 2층 한옥으로, 단출한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계획한 공간이다. 아래에 작은 주방과 욕실을 두고, 계단을 올라가면 방과 누마루가 있어,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별채 외부모습



별채 누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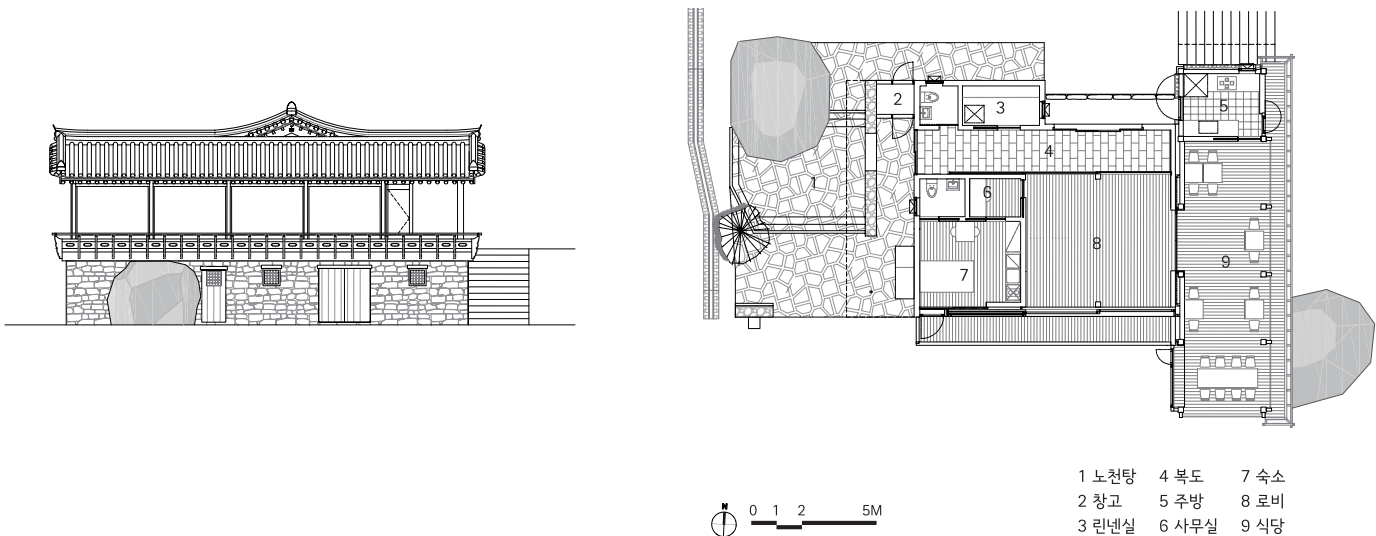
별채 누마루에서 바라본 풍경



관리동, 엄마와 같은 공간

새로운 숙소공간이 완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자, 하동군에서 관리동 설계를 추가로 의뢰하였다. 숙박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관리동의 성격을 생각하며 '여러가지로 가족을 돌봐주는 엄마같은 공간, 사람들을 맞이하는 포근한 공간'을 구상하였다.

숙박공간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참과 가까운 자리에 관리동을 배치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은 곳이지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 동선이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건물에 진입하며 눈앞에 펼쳐질 '대나무 숲의 전경'을 상상하며 설계하였다. 더불어 바위 위에 떠 있는 루와 같이 투명한 공간을 식당채로 하여 입구의 로비와 결합하였다.



부드러운 하이브리드와 white wall

계획을 진행하면서 홀을 한옥구조에서 중목구조로 바꾸었다. 주어진 예산에 맞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들보가 없는 시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열리는 창호 시스템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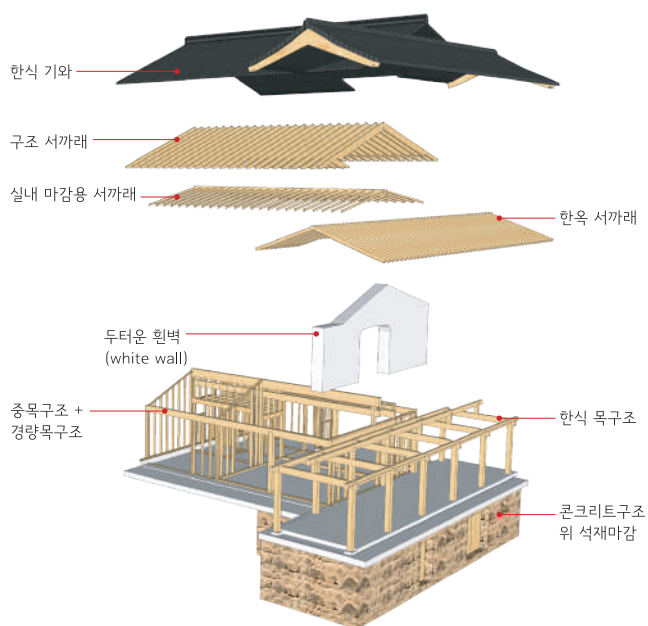
구조 서까래와 실내마감 서까래 사이공간을 이용해 설비층을 두어 시스템 에어컨, 전기선 등을 매립해 깔끔하게 천장을 마감하였다. 전통한옥에서 어려운 지붕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의 문집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계절에 따라 자연을 향해 자유롭게 펼쳐진 공간을 구현하였다.

지형의 경사를 이용해 지하에 기계실 창고, 실외기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

white wall: 한옥기둥과 중목기둥이 만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서로 영향이 없도록 틀을 두면서 부드러운 흰벽으로 감싸 하나로 보이도록 공간의 통일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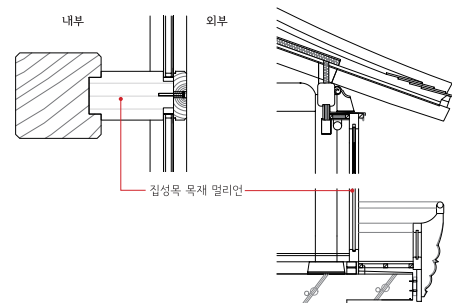
관리동 구조 개념도



기와지붕을 받치는 구조 서까래 아래에 실내 마감용 서까래를 두어 낮은 경사의 포근한 공간을 만들고, 양쪽에 흰 벽을 주어 아늑함을 주려 하였다. 특히 식당과 홀 사이에 두터운 흰 벽(white wall)을 두어 어지럽게 서있는 한옥 기둥과 목조 기둥을 감싸 내부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매개요소로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구법의 공간이지만 기와지붕을 덮어 전체적으로 한옥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하이브리드'를 시도해보았다.

식당 창호 디테일

멀리 있는 풍경을 안으로 들고오자 기둥만 서 있는 듯한 '투명한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 기둥 앞쪽으로 집성목 목재 멀리연을 두고 유리창을 두었으며, 블라인드 역시 보이지 않도록 상부에 공간을 계획하였다.





식당 누마루에서 섬진강과 평사리의 절경을 누릴수있도록
공사중 생긴 도로를 유지하고 다듬었다



공사하면서 발견한 큰 바위를 활용하여
그 아래에 노천탕을 만들었다

미래의 경계에 서다

계획을 진행하면서 홀을 한옥구조에서 중목구조로 바꾸었다. 주어진 예산에 맞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들보가 없는 시원한 공간'이 개방적으로 열리는 창호 시스템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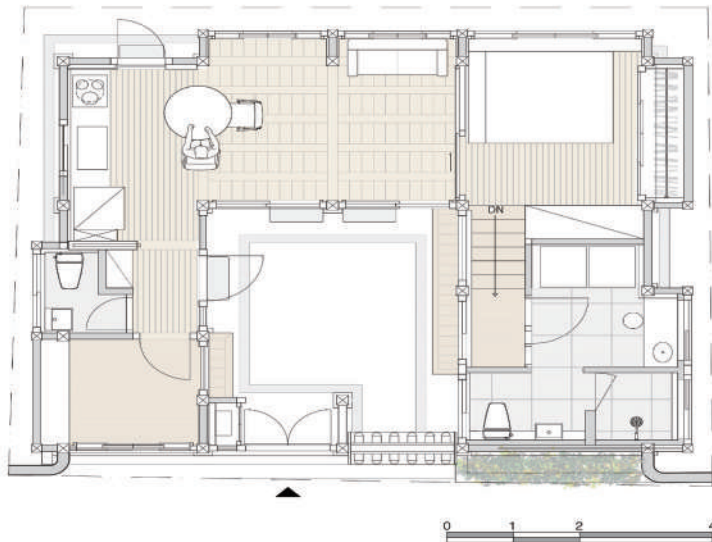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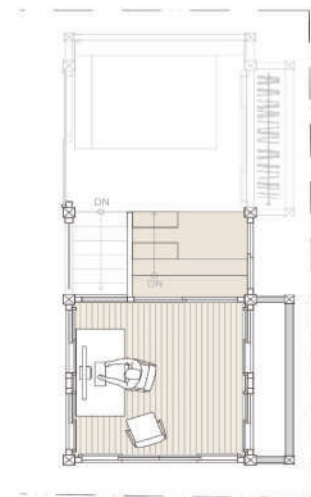
마당의 정상적인 채광 및 사용을 고려하면, 처마의 깊이와 마당의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집이 좁아진다. 서울 도심의 30평이 채 되지 않는 대지 내에서 마당을 제외한 건축면적은 한 가정이 살기에는 다소 협소하였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나름의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체부동 한옥

체부동한옥은 서촌의 한옥밀집지역에 있는 신축한옥으로, 막다른 골목의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조용하며 한옥 지붕의 흐름이 돋보이는 곳이다.

기존 한옥은 구조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으며 대지 경계선을 넘어가 있어, 수선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30평이 안되는 대지면적과 오래된 골목 특유의 지리적 단점은 의뢰인의 희망 공간을 전부 적용하기에 쉽지 않았다.

우리는 골목 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과 잘 어울리면서,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필요한 공간과 면적을 검토해보니 일부라도 2층 혹은 지하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골목 경관을 고려하면 온전한 2층 한옥은 부담스러웠고, 지하는 습기와 채광 문제, 좁고 경사진 골목에 땅을 깊이 파는 것도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지에서 가장 낮은 채를 스킵플로어 형태로 설계했다. 1층의 일부를 낮춰 0.5층 높이의 반지하로 만들고 그 위로 낮은 2층(1.5층)을 올렸다.(법적으로는 각각 1, 2층이나 이해의 편의상 이ру 0.5층 1.5층으로 표기)

골목에서 보았을 때는 단층 한옥으로 보이지만, 마당에서 보면 아래층 창호가 따로있어서 복층 구조로 인식된다. 0.5층에 화장실과 세탁실 및 파우더룸을 배치하고, 1.5층에는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서재를 계획하였다.

안방에서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러 기능을 갖춘 이동식 계단으로 제작하였다. 계단 일부를 재배치하면 평상으로 변환 가능하며, 맞은편 벽에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설치하여 홈시어터를 구성하였다. 계단 안쪽은 서랍으로, 추가 수납공간을 확보하였다. 부엌은 대청과 연결하여 컴팩트한 오픈식으로 설계하였고, 현관 옆에는 작은 손님방과 화장실이 있다. 마당은 크지 않고 아담하지만, 충분한 채광 역할을 하며 작은 바비큐 파티도 가능한 공간이다.

구석구석 작은 공간까지 고심하며 계획하였고, 마을 경관과 조화로우면서도 필요한 면적과 기능을 해결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설계자 어번디테일 건축사사무소
최지희, 텐들러 다니엘

건축주 정우람, 박선영

시공자 정승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대지면적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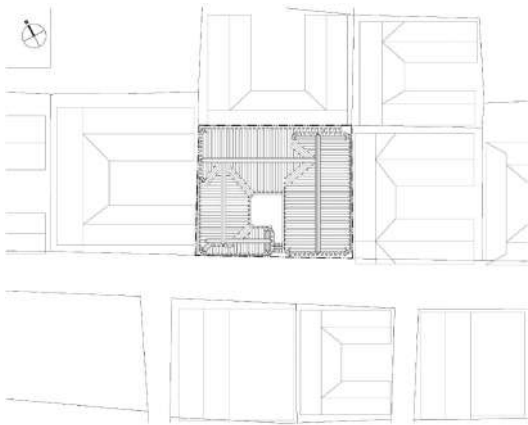
건축면적 47.87㎡

연면적 65.46㎡

구조 한식목구조

규모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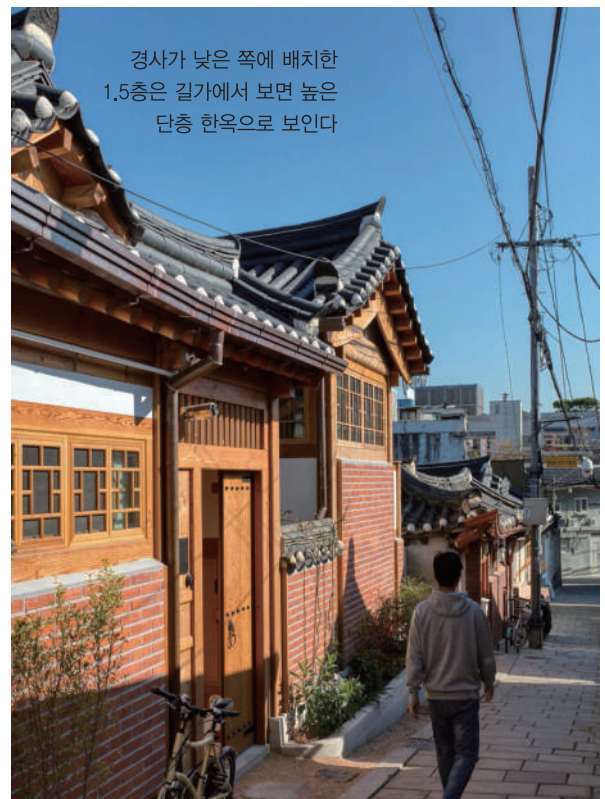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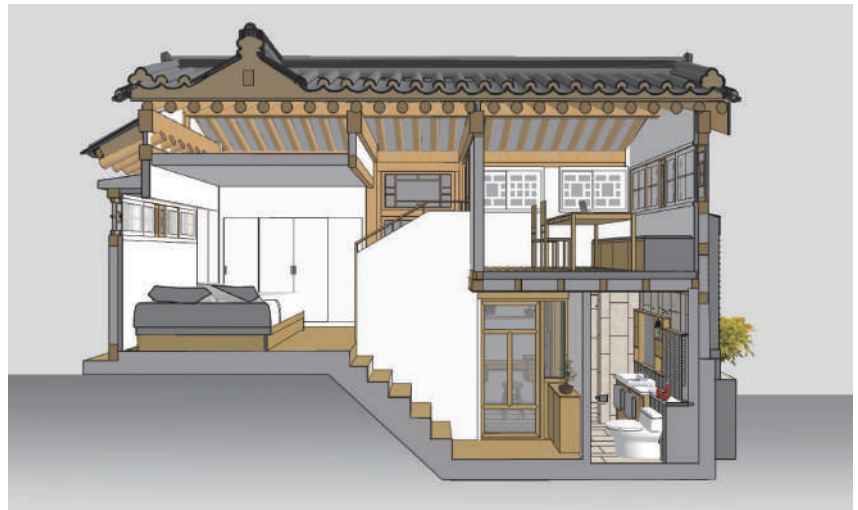
용도 단독주택



서촌의 막다른 골목길 경사지에 위치한 이 집은 단층으로 하기에는 너무 좁고, 2층으로 하기에는 골목경관의 흐름을 해칠 것 같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지의 경사가 낮은 지대를 스킵 플러어로 계획하여 용도를 구분하고 한옥이 늘어선 지붕 흐름이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IT업계의 특성상 근무패턴이 좀 더 자유로운 젊은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0.5층은 화장실, 세탁실, 파우더 공간, 1층은 안방 겸 흡시어터, 1.5층은 홈 오피스(서재)로 구성하였다.



경사가 낮은 쪽에 배치한 1.5층은 길가에서 보면 높은 단층 한옥으로 보인다



2층 서재

문을 전부 개방하면 하나의 큰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존 한옥의 칸과 방으로 구성된 작은 공간의 집합이 아닌, 젊은 의뢰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진 하나의 큰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안방에서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러 기능을 갖춘 이동식 계단으로 제작하였다. 계단 일부를 재배치하면 평상으로 변환 가능하며, 맞은편 벽에 프로젝트와 스크린은 설치하여 홈시어터를 구성하였다. 계단 안쪽은 서랍으로, 추가 수납공간을 확보하였다.

위층 서재는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를 하는 홈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기존 사무실보다 경관과 빛과 바람을 느낄 수 있어, 만족도 및 작업 효율이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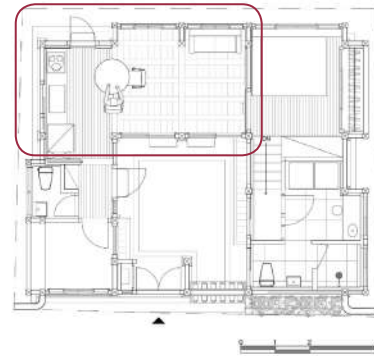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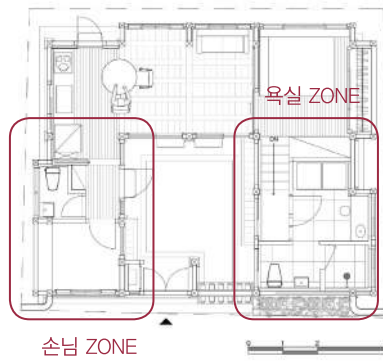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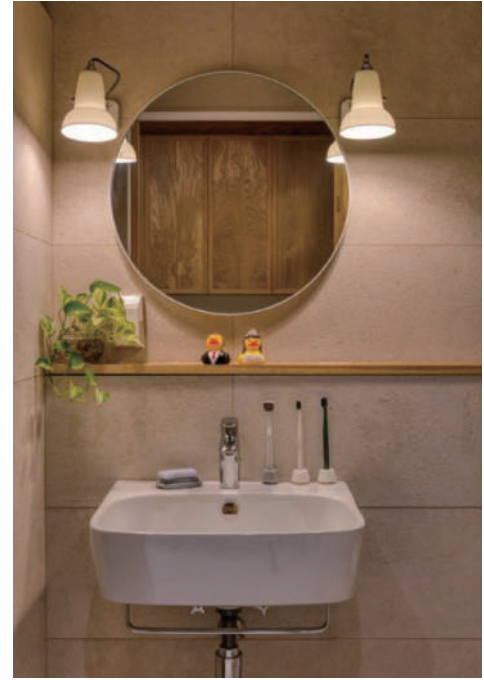


마당의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실내 채광에도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긴다. 큰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만큼 쾌적하며 실내가 밝고 통풍도 원활하다.

부엌은 대청과 연결하여 콤팩트하면서도 답답하지 않는 오픈공간으로 계획하였고, 대청갤러리도 이어 반침 내부엔 에어컨 및 수납을, 그 옆 칸엔 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소파를 배치하였다.

부엌과 대청





현관이 있는 왼쪽 두 칸 날개 채는 손님방과 손님 화장실을 구성하여, 손님이 방문 중에도 각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현관에서 바라본 주방



손님방의 창



손님방에서 바라본 마당



1978년 원서동빨래터

원서동 빨래터

이곳은 창덕궁 신선원전의 외삼문 우측 궁장(宮牆) 아래로 흐르는 소하천에 마련된 빨래터이다. 궁내의 물이 궁궐 담장을 통해 바깥으로 흐르는 곳에 평교(平橋) 형식의 2칸 다리(二間石橋 : 길이, 너비 약 1.5m 규모)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궁장을 연결하였다. 이곳 빨래터로 통하는 물은 궁내의 풍부한 수원으로 인하여 사시사철 마르지 않을 정도로 많이 흐르고, 또한 위치가 궁궐과의 경계인 담장 아래여서, 궁궐의 궁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조선시대 도성 내에는 이름난 빨래터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청계천과 함께 오래된 전통의 빨래터로 널리 알려진 곳의 하나이다.

빨래터 세심 이:집

빨래터 옆에 자리잡다.

창덕궁을 따라 고즈넉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빨래터에서 발길이 멈춘다.

창덕궁 외삼문 옆 빨래터에서 길은 끝나고 빨래터 앞 붉은 벽돌로 성벽처럼 움츠리고 있던 한옥은 길고 긴 여정 끝에 다시 태어났다.

문화재보호구역(보존구역)에 걸쳐있는 덕분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심의부터 서울시의 비용지원심의를 거쳐 종로구 심의와 건축허가를 거쳐 장장 3년의 시간을 지나 만들어진 집이다.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빨래터와 교각(외삼문 동편)이 연속되는 유구로 교각동편의 교대지가 발견되면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유구의 보존을 위해 문간채를 포기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건축주의 어려운 결정에 힘입어 문간채는 사라졌지만 덕분에 보다 여유있는 외부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원서동 30번지의 북동쪽에 위치한 창덕궁은 대지가 접한 도로보다 거의 3m이상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대지를 따라 도로까지 경사면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 레벨차이를 이용해서 지하를 최대한 노출시키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기단 위에 한옥을 앉히고 자연스러운 그라운드 레벨의 흐름을 대지에 적용시켰다.

지하를 내려가는 계단은 마당에 접하게 해서 지하에 채광을 극대화하고 주차장과 연결되어 노출된 지하의 한면은 지하의 음습함과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조건이 되었다.

마음을 닦는 집.

세심 이:집은 건축주의 부친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빨래터와 잘 어우러져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닦고 정비하는 장소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선재 차선주
건축주	(주)창크
시공자	(주)창크, 두해고건축 정영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대지면적	168.6㎡
건축면적	75.24㎡
연면적	146.47㎡
구조	일반목구조 외
규모	지하 1층/지상 1층
용도	단독주택

대지분석

원서동 30번지 일대의 변천사



1921년



1936년



1968년

원서동(苑西洞)

원서동은 글자 그대로 창덕궁의 후원 서쪽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서동의 동명이 이루어지기 전의 이 지역의 동명은 원동(苑洞)이요, 또 그 이전의 동명은 원동과 같은 우리말 음인 원동(院洞)으로서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현재의 원서동은 창경궁의 서쪽에 위치함으로써 명칭이 유래된 원서동은 창덕궁 담의 세로로 길게 형성된 전형적인 주택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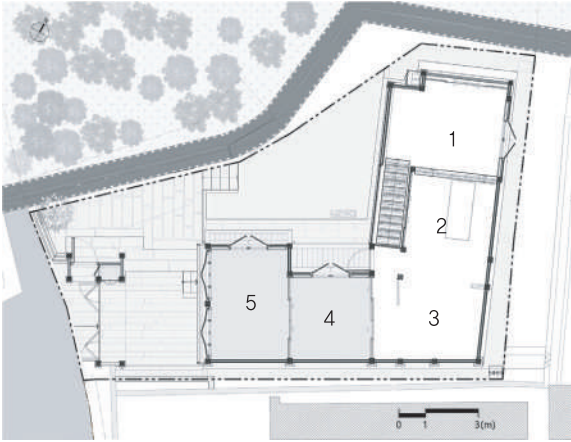
옛 지도에서도 보이듯이 오래전부터 골목이 형성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옛길 그대로 남아있다.



1954년 원서동일대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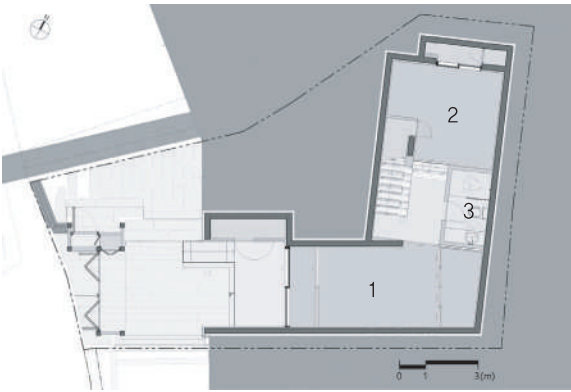


2020년 원서동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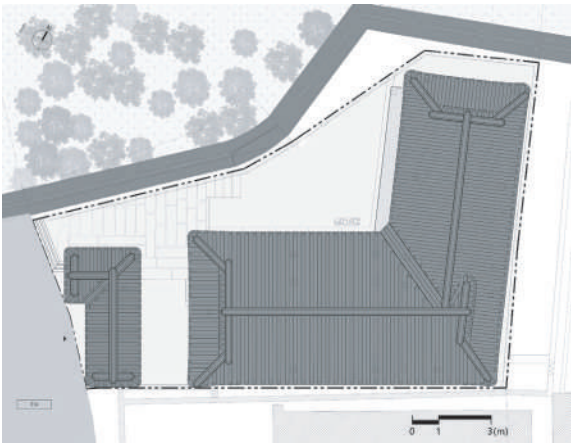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1. 식당
- 2. 주방
- 3. 거실
- 4. 서재
- 5.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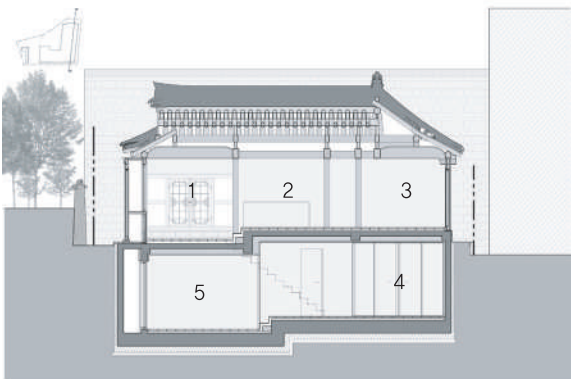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 1. 가족실-1
- 2. 가족실-2
- 3.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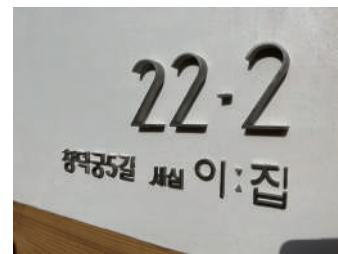
지붕



단면도

- 1. 식당
- 2. 주방
- 3. 거실
- 4. 가족실-1
- 5. 가족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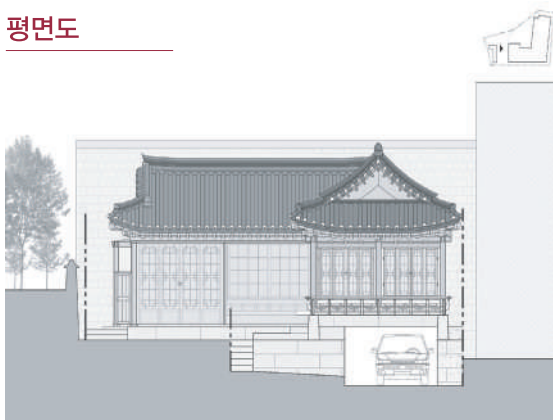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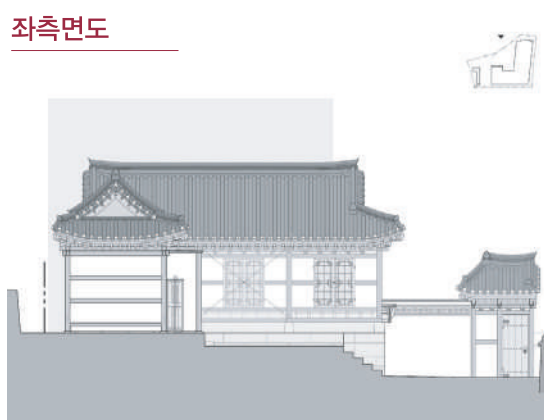
입면도

외부에서는 가로에,
내부에서는 마당과
소통하는 입면

평면도



좌측면도





공사 과정



기존 한옥건물 모습



시굴조사 모습



발굴조사현장 유구사진



2020년 11월 4일 현판식
 2020년 실시설계 및 시공
 2019년 기본설계, 사용자참여디자인
 2018년 서울정수초등학교공모선정
 2017년 "신한옥형 교육시설 실증구축"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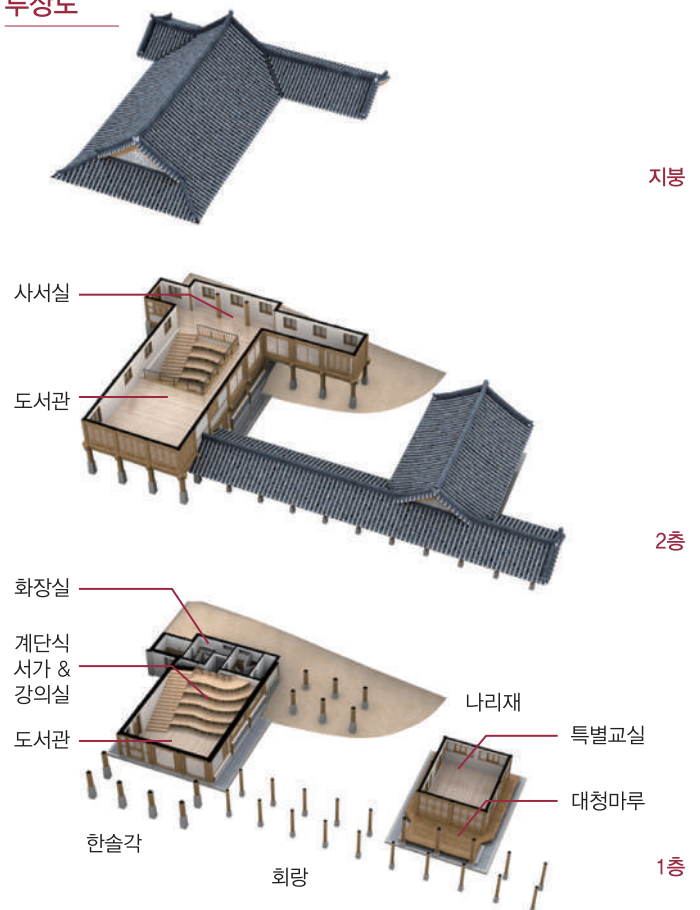


한슬각 전경



안마당

투상도



서울 정수초등학교 한옥교실

일상에서 만나는 전통공간

한옥건축의 확산을 기대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옥기술개발R&D와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서울 정수초등학교 학교구성원의 지지를 받아 한옥교실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전통한옥 속에서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으로 체험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한옥건축이 현재의 RC조 건축공간에 조화를 이루며 학교의 일상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옥교실은 운동장 북편에 자리를 잡았다. 기존 운동장 양편의 교사동과 강당을 잇는 연결공간인 썸이다. 한옥교실은 단독채가 아니라 2층의 한솔각(본채, 도서관)와 단층의 나리채(별채, 특별교실) 그리고 회랑으로 구성하였고, 각 채의 사이는 마당이 조성되었다. 햇살 가득한 안마당과 기존 소나무 조경을 모아놓은 숲정원은 한옥의 넉넉한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열린 담장인 회랑은 학생들의 그늘막이 된다.

한옥교실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를 지원하였다. 행정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교육공간이 아닌, 디자인과 만들기에 참여함으로써 한옥교실의 조성사업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다. 사용자참여디자인 워크숍은 한옥교실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기대를 증폭시켰다. 시공과정에서는 착공식, 상량식, 헌판식의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하였으며, 전교생과 교직원이 기와에 소원그리기 작업(기와봉사)을 진행하였고, 전량을 한옥교실 용마루에 시공하였다.

언제든 아름답고 튼튼한 한옥교실을 목표로 삼았다. 한옥교실에 어울리는 원목가구를 세심하게 디자인하였고, 한옥 공간에 조화되는 조명기구를 선정하였다. 한옥교실의 내구성과 실내환경성능을 고려하여, 프리캐스트 일체형 벽체를 고안하여 벽체와 기둥을 동시에 조립하였고, 집성재 곡보를 사용하여 2층 7.2m 너비의 지붕가구를 경쾌하게 완성하였다.

코로나19 기간 탄생한 한옥교실이 모범이 되어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일상에서 한옥을 체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 공공부분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설계자 (주)대연건축사사무소 김철민,
(주)쿠나도시건축연구소 송석재,
동양미래대학교 장필구

건축주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공자 (주)현영종합건설 김호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대지면적 11,953㎡

건축면적 227,86㎡

연면적 316,9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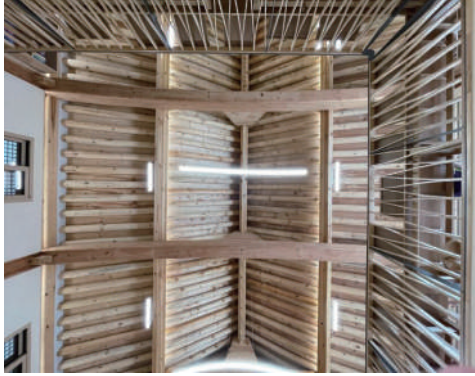
규모 지하 1층/지상 2층

용도 교육연구시설

책 읽는 자리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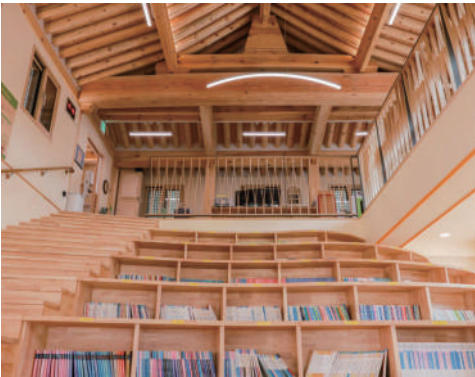
한솔각 누마루



한솔각 연등천장



한솔각 집성재 곡보와 조명



1, 2층을 연결하는 계단식 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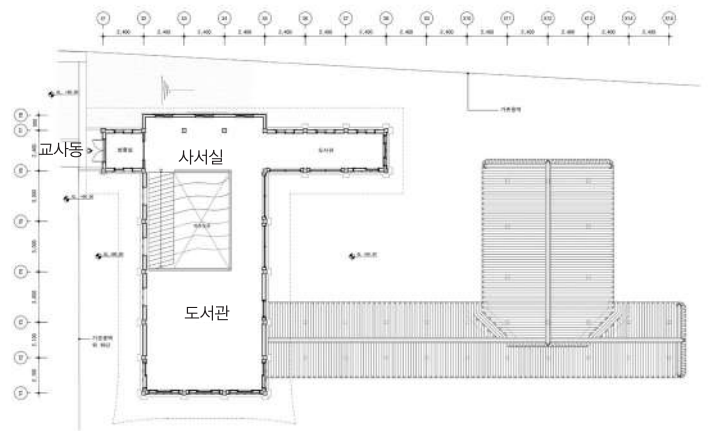
좌식 독서



입식 독서와 차경

2층 평면도

한옥교실은 바닥난방을 적용한 좌식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어디든 원하는 책을 들고 앉을 수 있으며, 사방으로 열린 창호를 통해 학교와 도시의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다. 특히 창호의 높이, 형식을 다르게 하여 책 읽는 자리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히 2층 바닥을 열어 1층부터 쌓아올린 계단식 계단식 강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대가 되기도 한다.



날개채에서 보는 회랑



서가에서 보는 운동장



누마루에서 보는 한옥교실 지붕





나리재 대청마루와 분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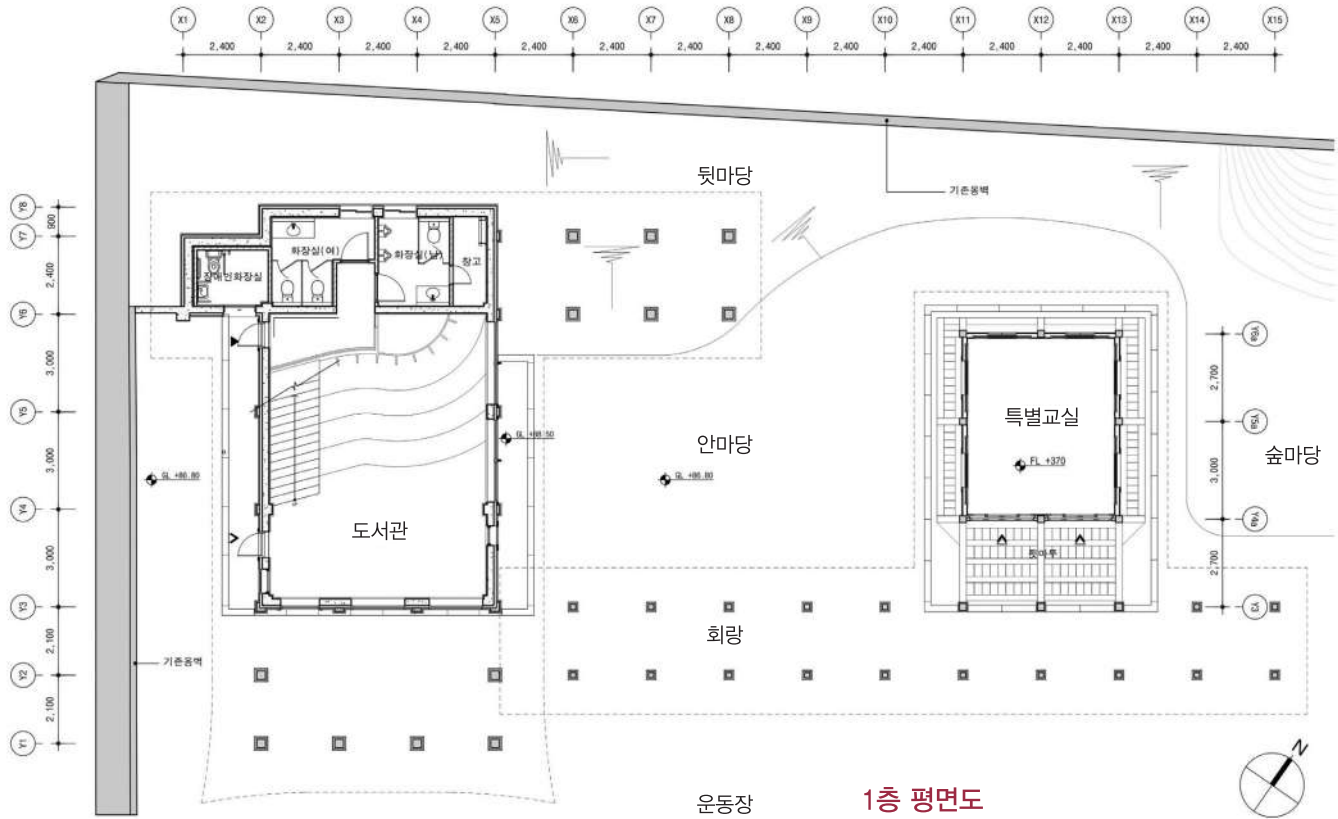


사방이 열리는 나리재 특별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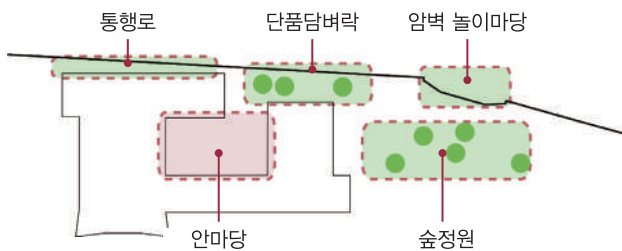


한옥교실의 시각적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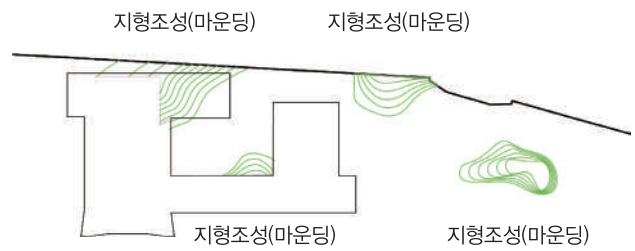
나무로 짓고 마당과 가까운 교실



영역화



Informal Topography - 비형식적 지형



햇살 가득한 안마당



소나무 빼곡한 숲마당



산책이 있는 뒷마당



재학생 사용자참여디자인 워크샵



현판식

우리가 만드는 우리학교 한옥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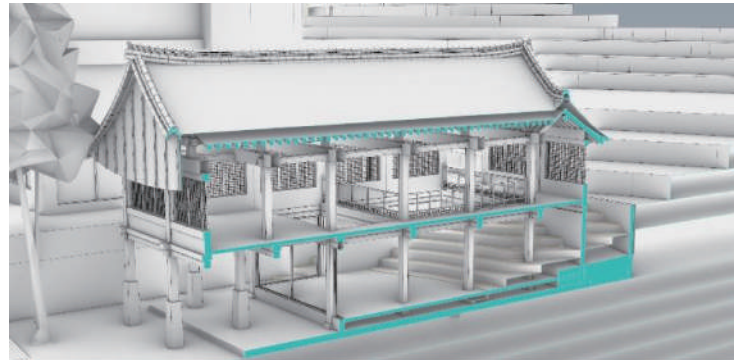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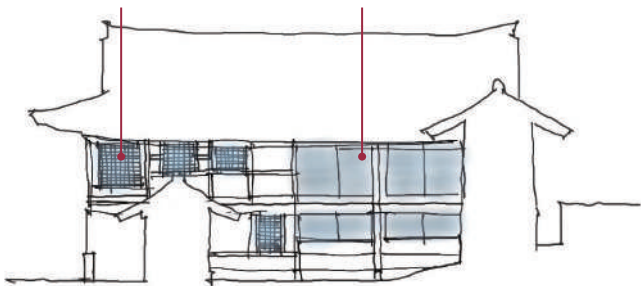
기와에 소원 그리기

중첩된 입면

입체적 교육 공간 계획

전통창호의 소박한 창호 스케일과 칸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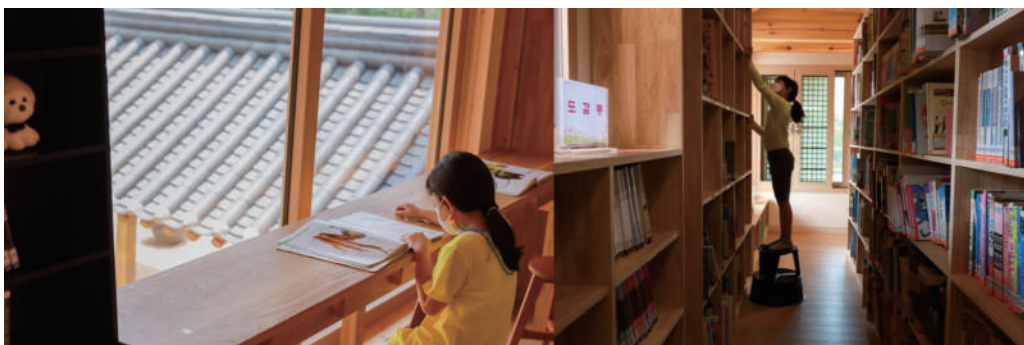
칸 모듈을 유지하며 개방감이 강조된 창호



한솔각



나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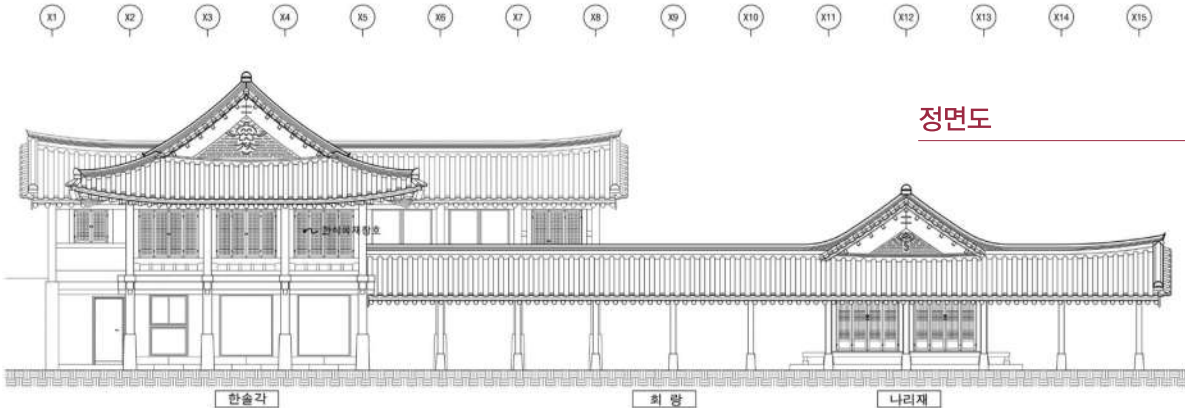


나리재와 회랑

한솔각 누마루

회랑

밤에 빛나는 한옥교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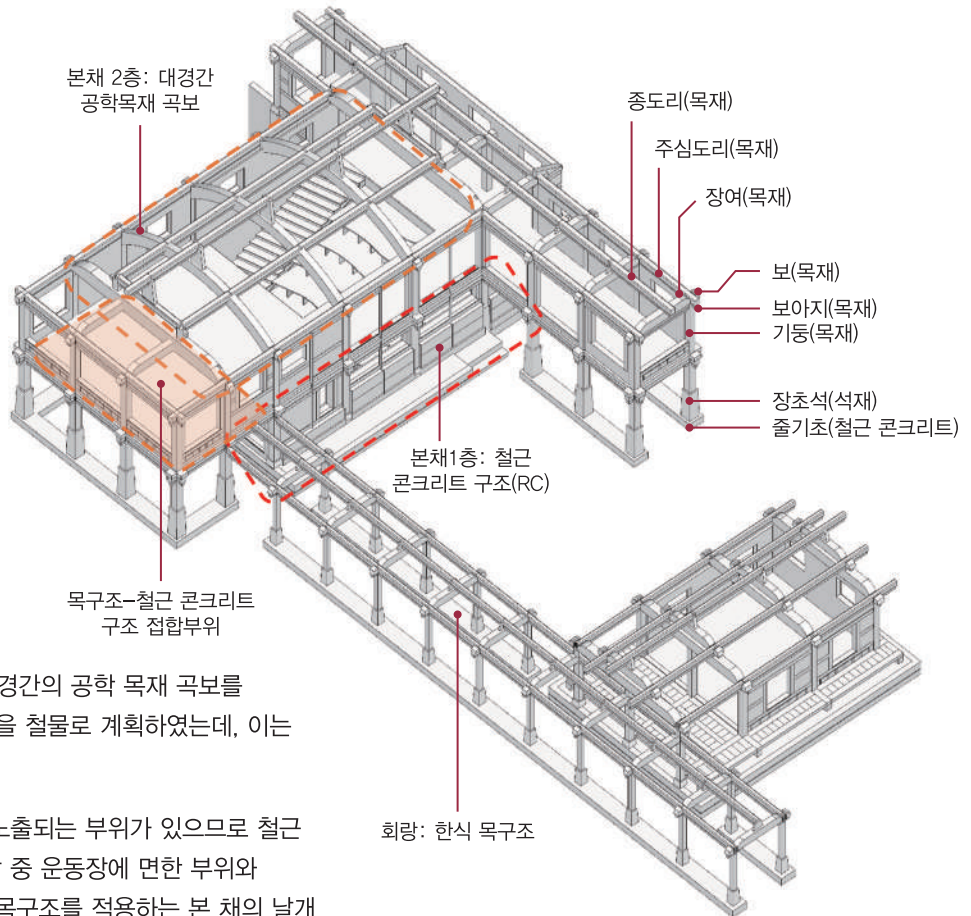


프리캐스트 일체형 벽체 시공

한식 대공간 목구조

2층은 자유로운 실의 사용을 위해 7.2m 경간의 공학 목재 곡보를 적용한다. 공학 목재 보는 기둥과의 접합을 철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구조적 안정성과 내진 성능을 위함이다.

본채 1층은 일부 지면과 접하고 일부는 노출되는 부위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하고 2층 본채 바닥 중 운동장에 면한 부위와 목구조로 접합시킨다. 한편 2층 중 일반 목구조를 적용하는 본 채의 날개 부분 하부는 필로티 형식의 목구조를 석재 초석 위에 앉히는 방식이다.



한솔각 남쪽 합각 엄마 문양

한솔각 북쪽 합각 아빠 문양

나리재 합각 어린이 문양

한솔각 1층 회방벽



사진부문

- 일반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소나기와 고택

수상자 장철현
촬영장소 대구 달성군 한현당 고택



금상



여름의 끝자락

수상자 이도은
촬영장소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은상



한옥의 창

수상자 이영태
촬영장소 대구 하목정

은상



소나무 병풍을 두른 서원

수상자
촬영장소

이재훈
함양 수동면
남계서원



동상

궁궐의 골목길

수상자 김경태
촬영장소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동상



반야용선

수상자
촬영장소

이지효
여수 용암사



입 선

완월정의 밤

수상자
촬영장소

한상곤
남원 광한루원

눈 내리는 세거지

수상자
촬영장소

김영태
달성 남평문씨세거지



입선

토담의 솟을대문

수상자 심수민
촬영장소 함양 개평마을



한옥의 따로 또 같이

수상자 서형관
촬영장소 서울 은평한옥마을



입 선



가족이 있는 풍경

수상자
촬영장소

정정임
경주 월성교

한옥이 주는 편안함

수상자
촬영장소

선우철호
인천 연수구 경원재



입 선

리틀포레스트 혜원의 집

수상자 박혜진
촬영장소 군위 혜원의 집



Old and New

수상자 김영수
촬영장소 대구 이양서원



입 선

무소유의 삶을
기억하며,
가을의 길상사

수상자 신용인
촬영장소 서울 성북구 길상사

무섬마을 설경

수상자 나기환
촬영장소 영주
 무섬마을





사진부문

- 청소년



금상



여름날의 풍경

수상자

정재혁

촬영장소

경주 독락당

은상



바다를 담은 한옥

수상자 김태경
촬영장소 동해 평릉동

은상

청운도서관의 여름

수상자 박은기

촬영장소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동 상

대청마루

수상자 한시유
촬영장소 안동 병산서원

동상

한옥의 처마 밑

수상자

정은송

촬영장소

경주 교동향교



입 선



은영

수상자 임세현
촬영장소 서울 경복궁

입 선

우리 집 잡상

수상자 허 신
촬영장소 서울 효자동





계획부문

상상樓

도심에서 한옥을 올려다보다



프로그램 : 도심에서 한옥을 보다

1. 1개 한옥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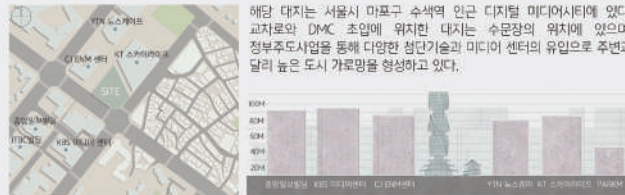
1. 현대 한옥 스케일



오늘날의 한옥은 발전된 기술을 통해 기둥간의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적 규모에 적절하게 재구조화 되었다. 우리는 현대의 고층 건물 설계에 대해 '절대자적 사신'이 아닌 '사용자의 사신'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한옥의 특징 중 사용자의 사신에서 볼 수 있는 처마 및 구조부분에 집중하여 새로운 한옥의 감상법을 제안한다.

대지분석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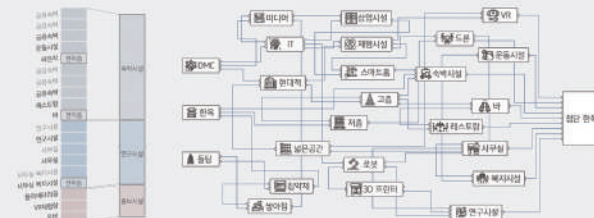
해당 대지는 서울시 마포구 수색역 인근 디지털 미디어시티에 있다. 교차로와 DMC 초입에 위치한 대지는 수문장의 위치에 있으며, 정부주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첨단기술과 미디어 센터의 유입으로 주변과 달리 높은 도시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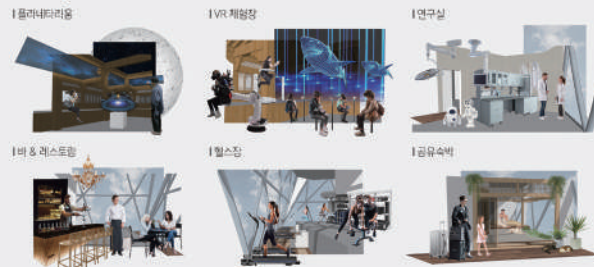


동탑은 '시간-노력-기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옥은 '기술-문화-양식'이 축적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제안 할 오늘날의 한옥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DMC에 들어사게된다. 동탑과 한옥, DMC는 무언가가 집약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집약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었고, 동탑/한옥/DMC의 요소를 하나도 모자, 우리나라의 기술과 발전을 시각적 메트로 알라 표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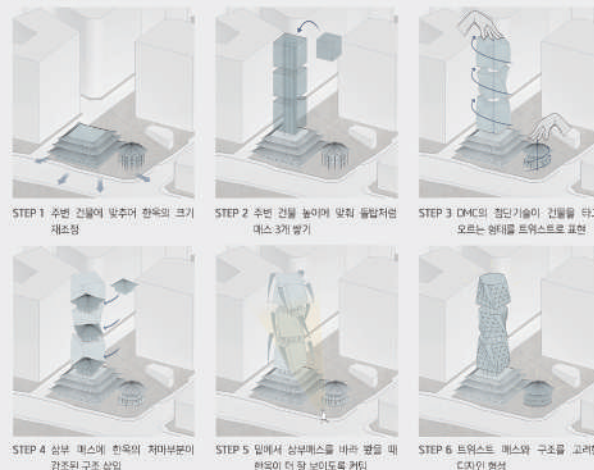
프로그램 도출



프로그램



설계 과정



絳牀樓 (상상루)

본 작품의 대지는 정부 주도로 계획되었던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첨단 디지털 산업 지구이다.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이하 DMC)로 불리며 미디어와 융합기술 등 미래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였다. 사무용도의 고층건물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주변의 환경과 다른 흐름을 만든다. 바로 이곳에 현대의 한옥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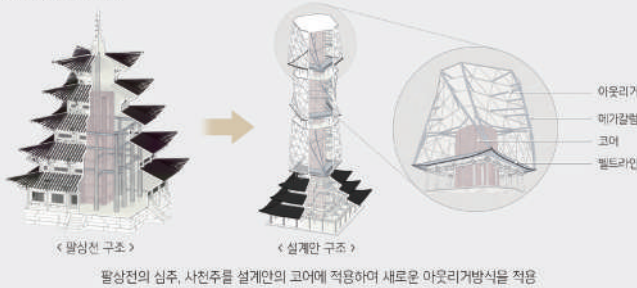
우리는 과거 한옥이 그래 왔던 것처럼,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분위기를 만드는 특성에 주목했다. DMC의 환경에 적응하는 현대적인 한옥은 주변 가로망에 순응해 고층화를 거치고 DMC 지구 전체가 갖는 첨단 기술적 성격을 흡수해 차세대 한옥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고층화된 한옥은 탑의 구조를 갖고 주심과 사천주 성격의 코어, 평좌식 구성을 비롯해 아웃리거, 캔틸레버, 공학목재, 철물 접합 등의 첨단 기술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고층화된 건물이 늘어서 있는 도심 속에 시선은 연출자가 바라보는 절대자의 시선이 아닌 거닐며 직접 체험하는 관찰자의 시선이다. 한옥의 강한 정체성 중 하나인 지붕은 저층 및 원경을 통해 강한 인상을 만들지만, 도시의 환경과 조건은 한옥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다. 한옥이 도시에 적응해 높은 마천루의 형태를 취하고 관찰자의 시선 방향인 '아래-위-아래'의 순서에 영향을 받아 무거운 지붕을 덜고 처마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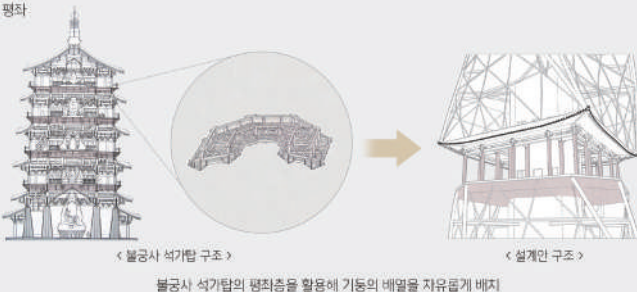
본 한옥 재생 제안은 가로망은 고층의 형태/ 도시의 인동간격은 관찰자의 시선/ 시간적 흐름은 현대적 형태/ 위치적 특성은 프로그램으로 표출되었다. 재생된 한옥은 DMC의 수문장 역할을 하며 첨단 기술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장소로 다양하고 수많은 관찰자(체험자)가 언제,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심상에서 변화하는 경관을 만든다. 오늘의 현대적으로 재생된 한옥을 만나 관찰자가 내일(미래)의 한옥을 상상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구조 제안

I 아웃리거 & 메가칼럼



I 평좌



철물 접합

I 콘크리트와 기둥 접합



I 기둥과 도리 철물 접합



I 평방을 얹은 철물 접합



철물접합과 목조의 융합을 통한 신한옥 방식으로 거대한 하중을 단단하게 지지하며, 대규모 고층화의 가능성을 높임

계획부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絳牀樓 (상상루)

동양미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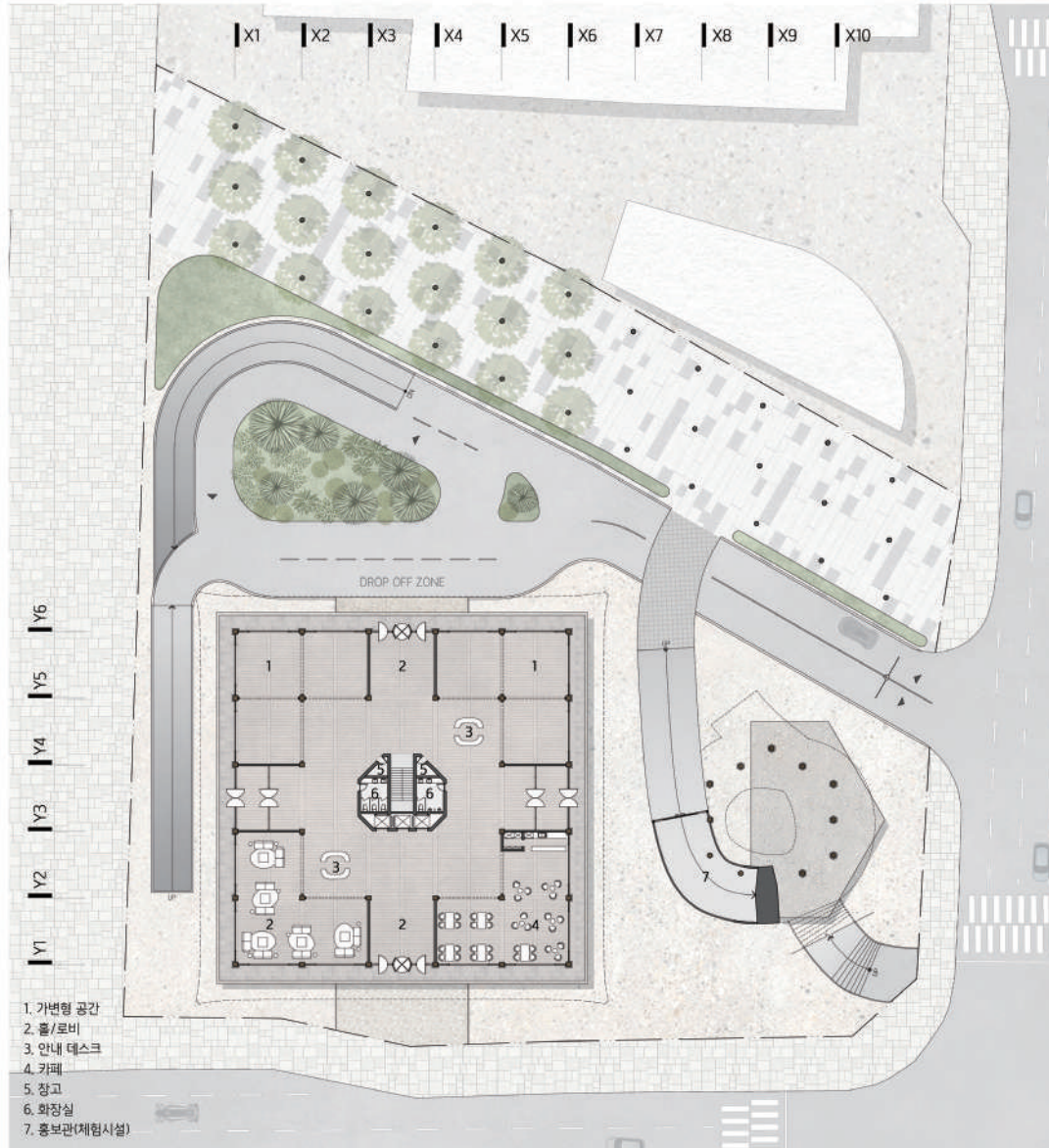
신슬빈

박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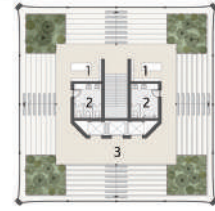
김하늘

평면 계획

11층 배치도_로비 SCALE: 1/400



15층 평면도_복지시설 SCALE: 1/400



1. 탕비실 2. 화장실 3. 복지시설

17층 평면도_연구실 SCALE: 1/400



1. 사무실 2. 연구실 3. 회의실
4. 창고 5. 화장실

110층 평면도_바/라운지 SCALE: 1/400



1. 라운지 2. 바(BAR) 3. 화장실 4. 홀

111층 평면도_레스토랑 SCALE: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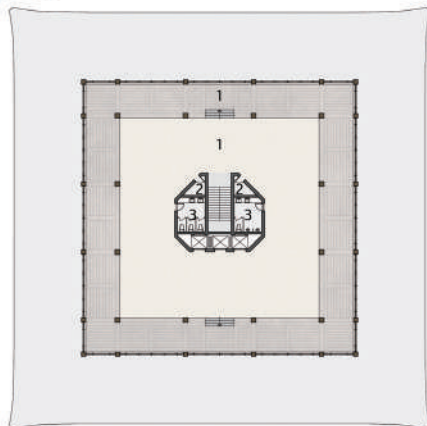
1. 레스토랑 2. 화장실 3. 주방 4. 홀

112층 평면도_공유숙박 SCALE: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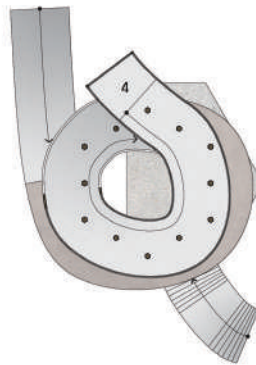


1. 주방 2. 대청마루 3. 방
4. 화장실 5. 앞 마당 6. 현관

12층 평면도_체험공간 SCALE: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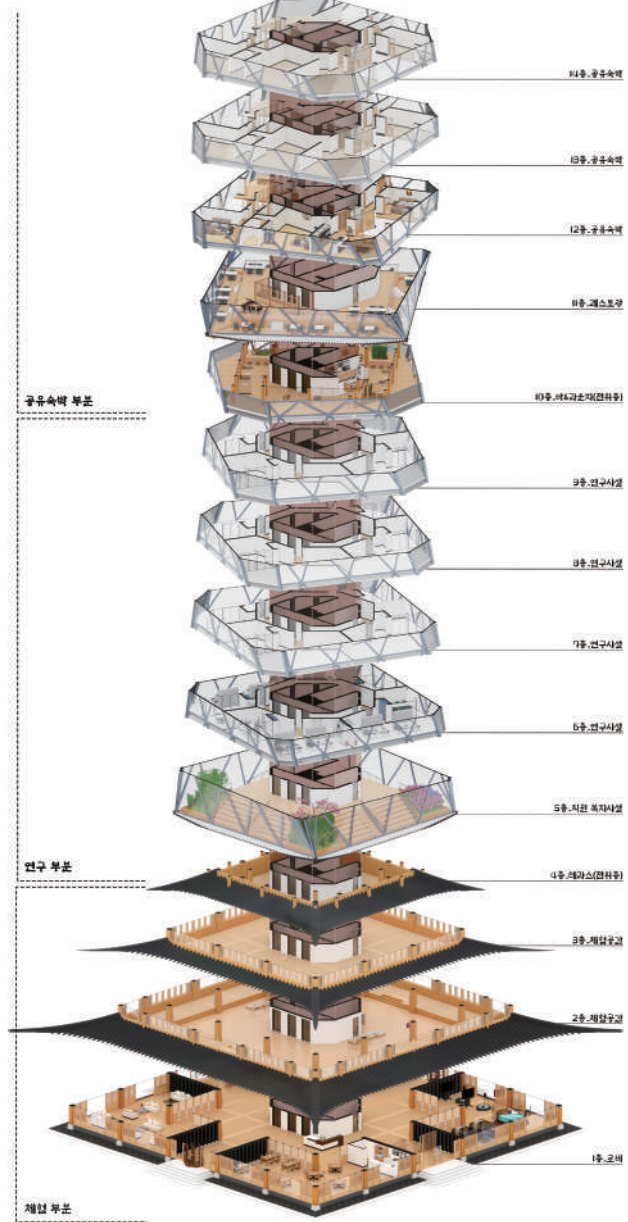


1. 체험 공간
2. 창고
3. 화장실
4. 홍보관(체험시설)





동선 계획



입단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68 외 8필지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지면적 : 1,960㎡
 연 면 적 : 3,589㎡
 규 모 : 지상1층 ~ 5층
 구 조 : 중목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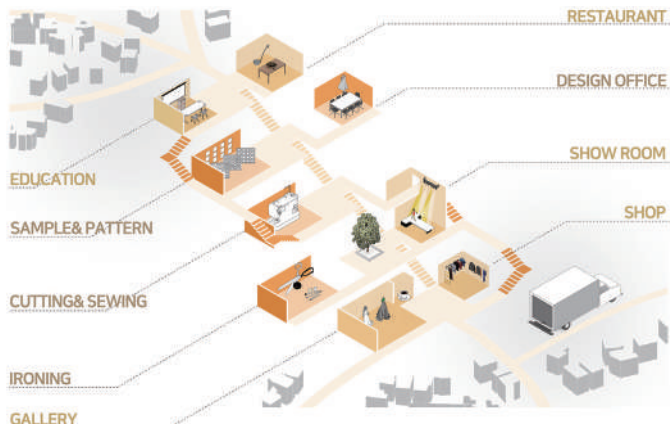


창신동은 과거 채석장이었고 지형 변형으로 두 마을로 단절시킨 절개지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방문 당시 이용이 어려운 골목길들과 곳곳에 협소한 쉼터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한옥을 이용해 원 지형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사이트에 위치한 유유 건축물을 품고 끊어진 골목길을 연결하여 두 생활권을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주인과 이용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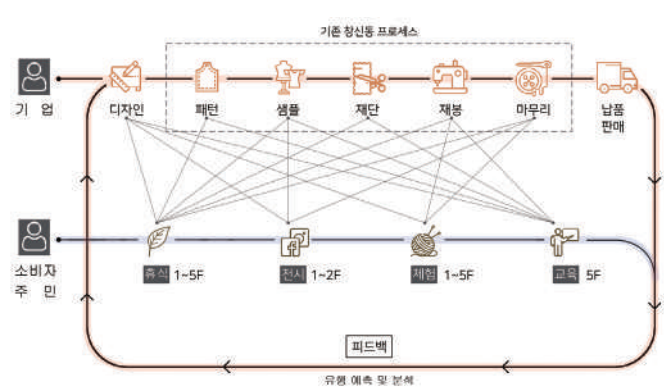


컨셉



경사지로 인해 단절된 두 생활권을 이어주기 위해 창신동의 정체성인 골목길을 컨셉으로 잡아 봉제 공장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프로그램



기존 창신동에 존재하던 봉제 프로그램에 주인과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더하였는데 이는 변화가 빠른 패션 시장의 유행을 예측 및 분석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장공로(匠公路)

- 창신동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일상을 한옥으로 담다

한옥과 경관

옛부터 한옥은 경관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겨왔고 그로인해 현재까지 남겨진 한옥건축물은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한옥은 경사지 부지를 평평한 구조로 만들어 시공하는 토목적 성격이 강하다. 본 계획안은 과도한 대지 고저차를 손대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계획하였다.

봉제와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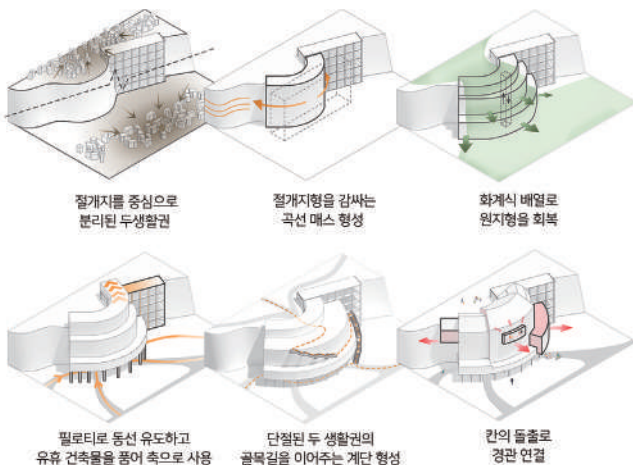
창신동은 과거부터 봉제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나, 마을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긴동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봉제작업을 위해 골목길을 오토바이로 다니며 공정을 진행해왔다. 이 계획안에서는 봉제산업프로그램에 골목길을 합하고 일반인에게 교육관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봉제산업으로 지형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고층과 곡선의 구조적 해석

본 건축물은 절개지에 접한 5개층의 구조로 구성하였고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R.C구조와 중목구조를 접목하였다.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 프리캐스트 공법을 이용하여 벽체를 사전에 제작하고 기둥과 함께 시공하여 공기를 단축한다. 목재의 접합은 연결철물을 통해 견고함을 더한다. 전체적인 구조는 곡보를 적용한 대공간은 지붕과 간의 돌출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절개지를 이용한 새로운 현대식의 한옥을 제안함과 동시에 주거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공하고 봉제의 프로세스의 동선을 간소화 하여 일반인들에게 간접적인 체험을 하며 골목길을 거니는 작은 창신동을 이룬다.

디자인 프로세스



계획부문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장공로(匠公路) - 창신동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일상을 한옥으로 담다

동양미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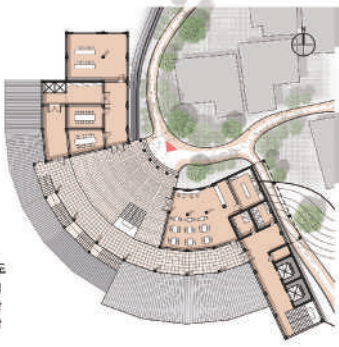
한승우

최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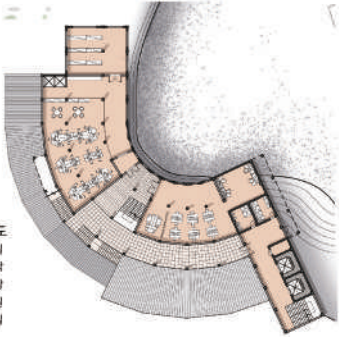
조승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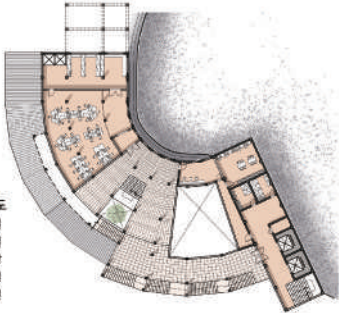
S: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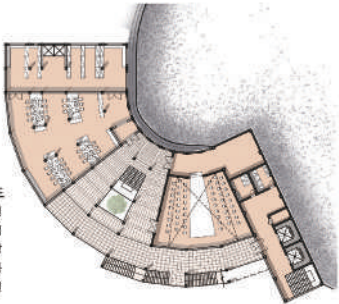
- 5F 평면도**
 1. 고 육 실
 2. 마 당
 3. 식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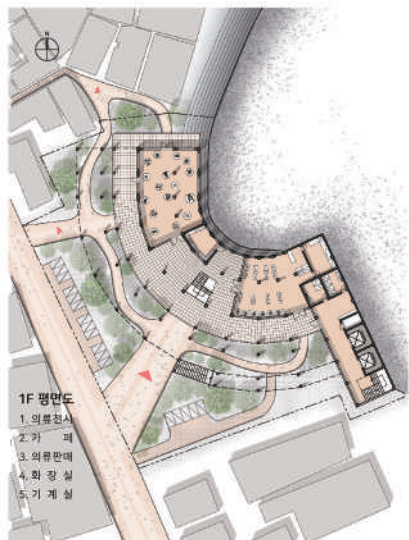
- 4F 평면도**
 1. 생 활 실
 2. 폐한제작
 3. 마 당
 4. 디자인실
 5. 작 업 실



- 3F 평면도**
 1. 보 관 실
 2. 계 단 실
 3. 마 당
 4. 조 직 실
 5. 발 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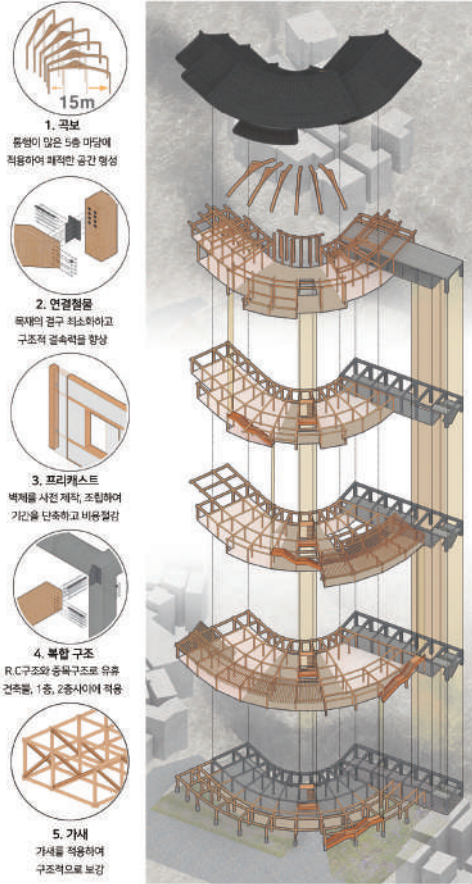


- 2F 평면도**
 1. 보 관 실
 2. 입 단 직 업
 3. 마 당
 4. 소 쉼
 5. 온 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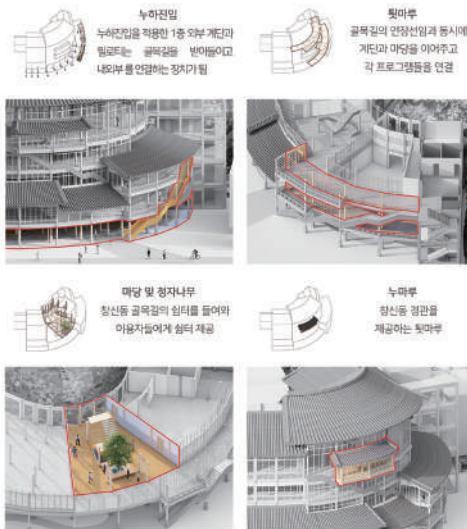


- 1F 평면도**
 1. 의 료 전 사
 2. 가 피
 3. 의 료 관 대
 4. 화 장 실
 5. 기 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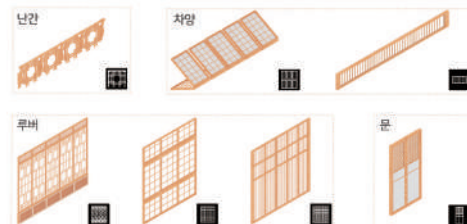
구조 다이어그램



한옥 요소



입면 계획





5F 안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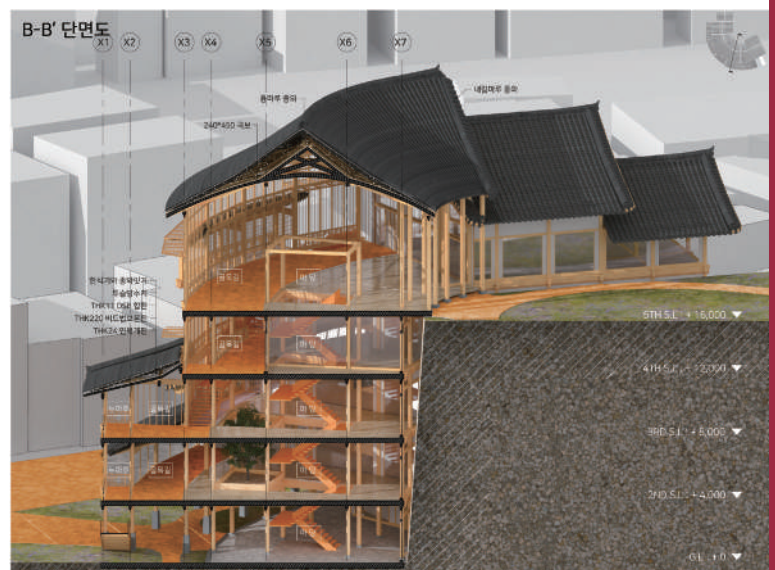
4F 디자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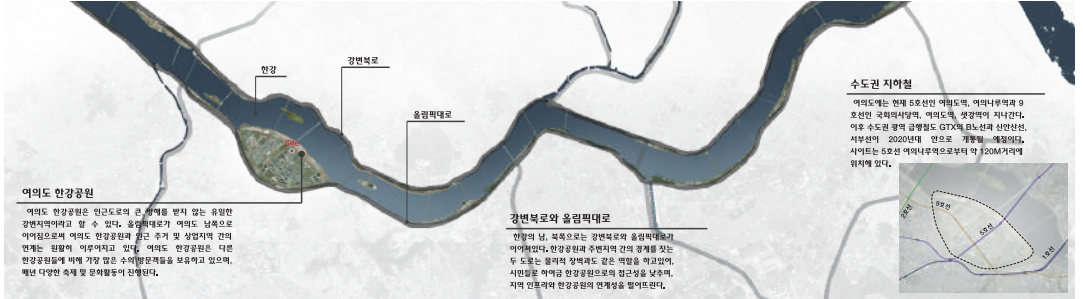


2F 쇼룸



1F 회랑





대상지 선정 기준

1. 한옥밀집지역 및 문화재 인근 지역 제외
2. 대한민국과 수도를 대표할 수 있는 현대적 도심지
3. 대규모 공원 혹은 자연환경과 연관될 수 있는 지역
4. 학교 및 주거밀집지역 중,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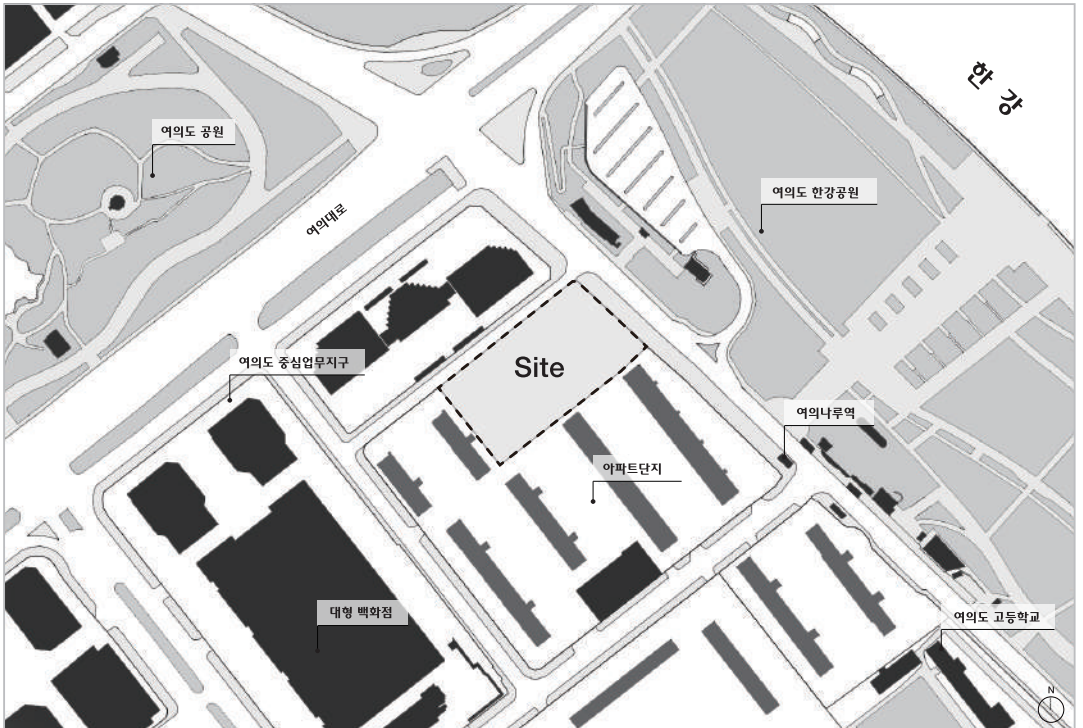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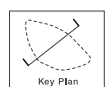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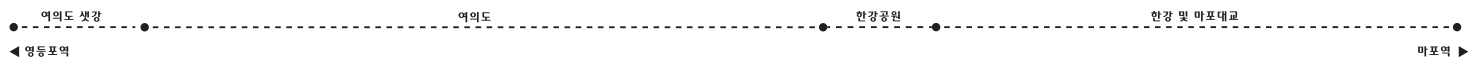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 5
 면적 : 9,917m²
 용도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한옥이 되기 위한 실험적 설계 대상지로서, 한옥 밀집지역 및 문화재 인근 지역은 대상지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대규모 도심지 가운데 우리나라 전반의 주거문화를 이루는 아파트단지 인근, 공공 문화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연 녹지지역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대지로 설정하였고, 대규모 백화점과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 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하였다.

여의도는 근대기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해서 전통적인 역사성이 희미한 지역이며, 서울시 한옥밀집지역들 혹은 문화재 인근지역들과도 거리가 있다. 역사적인 지역이 아닌 현대적 도심지에서도 오늘날의 한옥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동쪽으로 여의도 한강공원과 맞닿아있고 서쪽으로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장방형 대지이다.



한-옥2050

한옥은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건축이며, 전통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시대에 따라 한옥은 변화하며,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인문, 자연 경관의 변화와 함께한다. 2000년대 이후 한옥을 비롯한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건축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목재에 대한 공학적 발달과 함께 한옥은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대인들의 삶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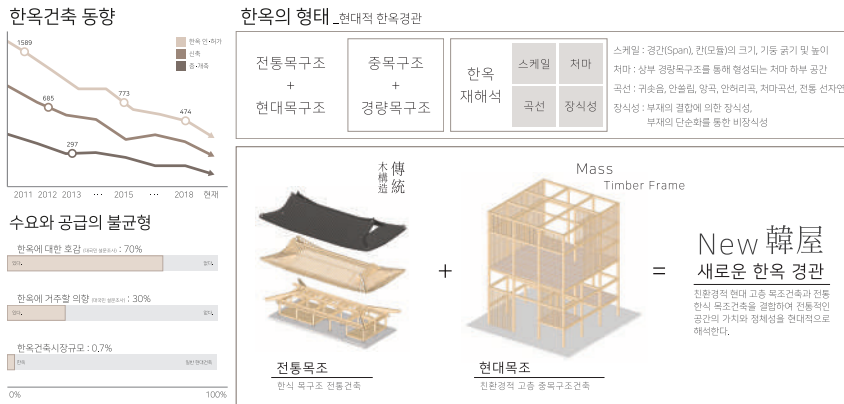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가진 고층 목구조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 및 오피스를 계획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국적 건축, 친환경적 고층 목조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여 미래형 한옥 경관을 표현한다. 경제성, 기능성, 상징성을 추구하는 현대적 삶 속에 한옥의 가치를 녹여내어,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한옥의 새로운 경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여의도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공원 및 아파트 단지와 접해있다. 대상지를 통하여 전통적인 역사성이 희미한 오늘날의 도심지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느낄 수 있는 한국적 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의 기본 개념은 '전통 목조와 현대 목조의 결합'이다. 현대적 고층 중목구조건축과 전통 한식 목구조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옥 경관을 표현한다. 구조용 집성목인 GLULAM과 CLT패널을 활용하여 GLULAM 기둥, 보, CLT 복합패널 플로어를 구성하였으며, 횡력저항력 확보를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코어를 혼용하였고 하이브리드 철물 접합을 적용하였다. 내외부의 한식 목구조와 한옥형 경량목구조는, 그 기본단위인 '칸'을 현대식 중목구조의 모듈과 엮어 구성하였으며, 커튼월과 목재 루버를 상, 하층부 입면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오피스, 문화,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기존 한옥의 제한된 쓰임에서 벗어나 공공건물로서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수요자 중심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보행자 중심의 공공시설로서 건물의 저층부에 공공문화시설,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오피스 로비를 지하 1층에 배치하였다.

'한-옥2050'을 통하여 국내 목조건축의 발달과 함께 보급될 새로운 형태의 한옥을 제안한다. 오늘날의 도시경관과 합리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현대건축으로서의 한옥, 나아가 일상적 건축으로서의 한옥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변화하는 삶의 모습들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한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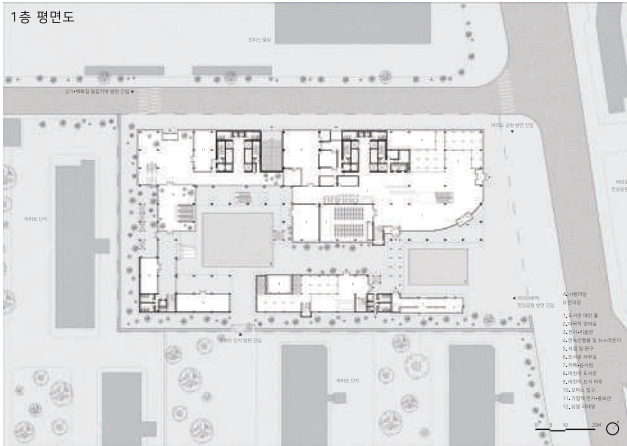


계획부문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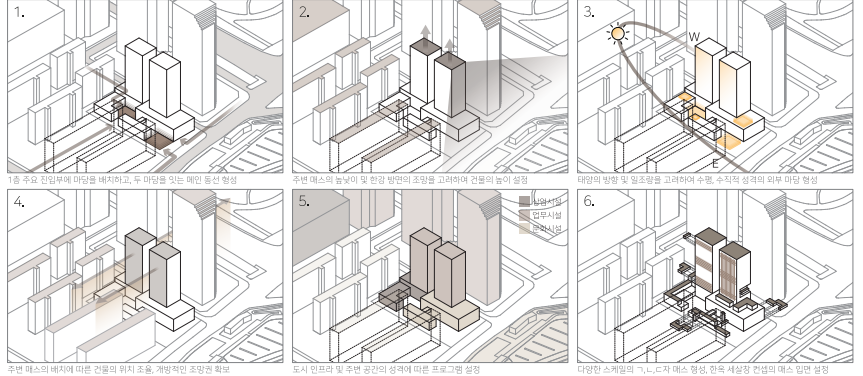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한-옥205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종영



설계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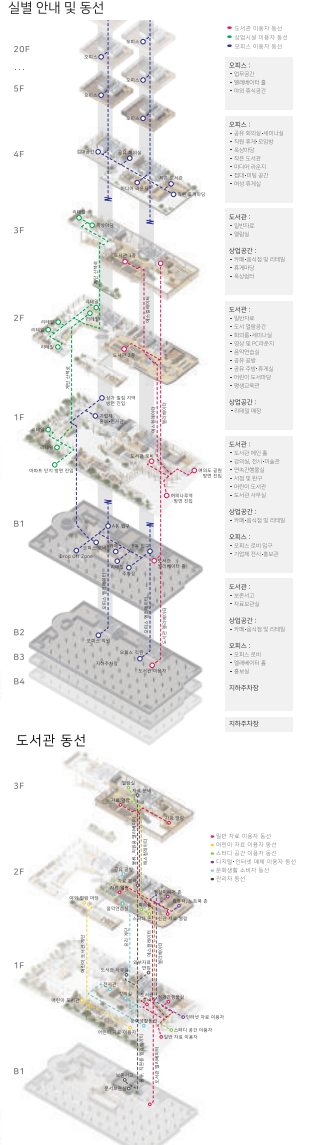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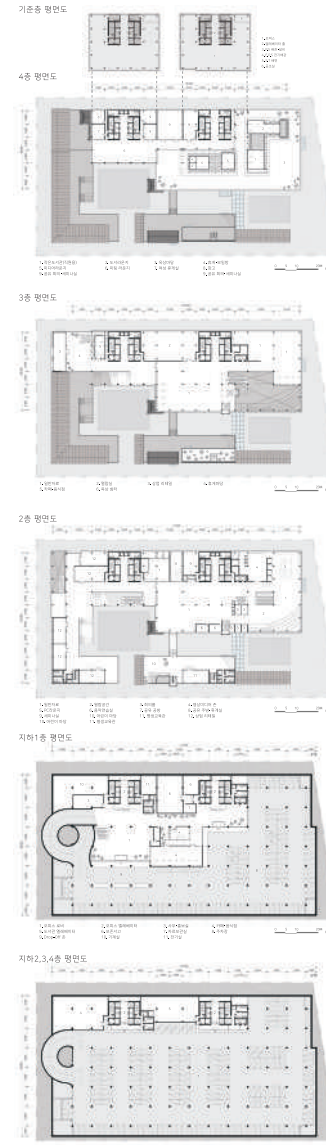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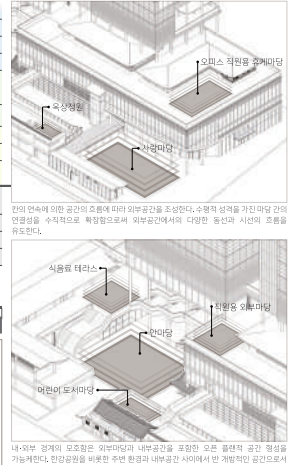
프로그램

층수	프로그램
10F	도서관
9F	도서관
8F	도서관
7F	도서관
6F	도서관
5F	도서관
4F	도서관
3F	도서관
2F	도서관
1F	도서관
B1	도서관
B2	도서관
B3	도서관
B4	도서관

도서관 인구 수
1관당 인구 수: 48,733 (총 1,949,324명)
* 여의도 인구 34,022명

인근 도서관 현황
* 국회도서관 - 아카이브 및 책 독서도서관
* 여의도 옛강마을도서관 - 458㎡
(국회도서관 부속 건물 면적 기준: 1,350㎡이며, 서울 공공 도서관 1관당 평균 면적: 1,896㎡)

외부공간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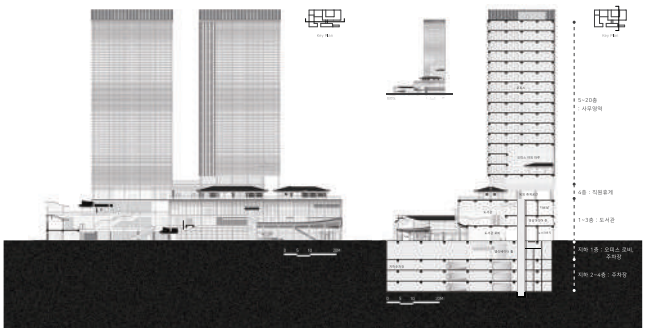


구조 계획_합리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1. 공학목적 Mass Timber Frame (중목구조)
 2. RC Hybrid Core
 3. 자재 모듈화를 통한 프리컷, 건식공법
 4. 한식 목구조 활용, 공존
- 친환경적 고층 목조건축과 한옥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한국적 건축에 대한 제안
 -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을 위한 목재의 대량사용
 - 공학목재의 중목구조와 한옥의 기본 구조개념을 융합, 공존
 - 공사비용과 기간의 절감을 위한 목재의 모듈화, 프리컷
 - 횡력저항력 확보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혼용

구조 다이어그램_전통과 현대의 융합

- 한옥형 경량목구조 + 징크지붕**
경량화, 세밀화, 단속화 된 일방형 경량목구조와 징크지붕을 결합하여 한옥시행의 장식성을 조화한 현대적 한옥시행을 제안한다.
- 한식목구조**
정리 이중 통풍장치, 목재기재, 방화벽, 단열재, 구조용 방화벽, 단열재, 방화벽, 방화벽, 방화벽
- 현대식 중목구조**
정통한식기와, 6mX6m 격자 목틀, 구조용 강성벽(10m) 기둥, 보 구조용 방화벽(10m) 벽면방화벽 등용어
-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계단, 실외 사프트
- 한식 창호 및 벽체**
- 배출기통**
- 유리 커튼월**
공방을 통하여 직사광선의 복사열을 차단한다. 전통적 세장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 하였으며, 건축기와 지붕과 원목의 색상을 적용하여 건축적 미시미를 강조하였다.
- 특재 문부**
공방을 통하여 직사광선의 복사열을 차단한다. 전통적 세장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 하였으며, 건축기와 지붕과 원목의 색상을 적용하여 건축적 미시미를 강조하였다.
- 유리 커튼월**
공방을 통하여 직사광선의 복사열을 차단한다. 전통적 세장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 하였으며, 건축기와 지붕과 원목의 색상을 적용하여 건축적 미시미를 강조하였다.
- 지하주차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 한식목구조**
정통한식기와, 한식당장
- RC코어**
임상목과 하이브리드 철골골방
- Glulam 기둥**
상중부 400x400mm, 하중부 500x500mm
- 한식목구조**
정통한식기와, 한식당장





도서관 진입마당



외부 휴게공간 및 안마당



도서관 내부공간



어린이 도서관 내부 마당



도서관 단면

Key Plan

오피스 야외 마루

3층 높이의 한옥형 휴식공간으로, 한강과 정면으로 마주해있다. 오피스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며, 하층부의 한옥과 마당의 커를 두고 시선은 한강공원과 한강 맞은 편으로 이어진다.

오피스 한옥 도서관

상층부 마당과 어우러지는 두 채의 한옥은 도서관지와 미디어실, 휴게모임공간과 대칭으로 이루어져있다.

옥상 실터

어린이 도서관 상층부에 위치한 야외 실터는 한식 담장에 기대어 나무 그늘과 테이블 공간을 제공한다.

도서관 자료실

오픈플랜형 공간에 성인 기술놀이의 서가를 배치하여 사용자 간의 지식의 소통과 자유로운 동선을 유도한다.

사랑마당 및 카페

한강공원 방면 진입부 마당 인근에 브런치 카페와 야외 테이블이 위치한다.

공유 회의룸

자유 열람공간

PC 라운지

PC라운지는 영상미디어 존 및 VR 게임공간과 이어진다.

도서관 로비

1층 초반부의 에스컬레이터는 상층부의 한옥채와 하부로 이어진다.



수원 화성의 공방거리는 문화유산보존 및 한옥개발사업에 밀려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 낙후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방 예술가와 주민들을 위해 공방거리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한옥을 이용한 소풍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Prologue



화성 일대는 옛 수원의 도심지 역할을 하였지만 수원역, 인계동, 영동, 광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권이 성장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가 유출되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한옥체험마을 조성, 행리단길 조성 등 많은 관광 및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성곽 내 기존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이트 일대는 행궁을 중심으로 북쪽에 비해 새로운 문화 인프라의 형성 및 운영이 부족하고, 팔달산에 둘러싸여있는 지리적인 위치상 접근이 쉽지 않아 주변 상권이 다소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ite Analysis



<사이트 내 등고를 활용한 경관 창출 및 주변 경관과 이루는 조화>



○ 팔달산을 배경으로 하는 상징성 있는 경관 형성

- 사이트 인근에 수원의 경관을 어필할 수 있는 유려한 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 이상의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어렵고, 유출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연계하여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옥을 통한 수원 공방거리(기존 거리) 및 주변 주거지 경관형성>



○ 역사문화유산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공방거리)의 경관 개선

- 기존 한옥 및 문화유산(거리)에 위치한 공방거리의 경관은 최상위권의 팔달산, 남문 및 수원의 근대 건축유산의 경관을 지니고, 유출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연계하여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기존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여, 유출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연계하여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수원 건축유산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현대 한옥의 고층부 디자인으로 거기에 통일감 있는 경관 형성

未化 ; 행궁동에 변화를 가져오다.

수원화성 장안동은 문화유산 복원 과 한옥 촉진 지구 개발로 관광 및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행궁동 일대는 공방거리의 쇠퇴와 새로운 인프라 형성의 부족, 기존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방 예술가와 주민들을 위해 쇠퇴된 공방의 연장선상인 테마에 의한 한옥을 이용해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한옥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

먼저 지붕 아래에 프로그램별 테마를 담기 위해 1고주 5량가의 가구방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요구면적에 따라 변형시켜 공간을 구성하였다. 칸의 중심에 한옥-양옥-마당-한옥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동선을 형성하여 건축적인 변화를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동선 양쪽으로 작업공간과 휴식 공간을 배치해 변화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공방거리와 맞닿는 앞쪽엔 스튜디오나 주민자치시설을, 마당 안쪽에는 작가의 개인 공방이나 주거시설을 프로그램의 공과 사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기존 골목길을 보존하며 분절된 매스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양옥과 한옥 간 이동을 자유롭게 했다. 축이 달라지면서 형성된 마당은 앞쪽의 흐름을 안까지 이어주며, 경사지에 맞게 레벨을 설정해 다양한 진입 동선을 배치했다.

또한 지형에 맞추어 한옥을 배치하여 수직적으로 반 칸씩 올려 지붕을 겹겹이 쌓아 팔달산을 배경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주변 건물들과 높이를 맞추어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하였다. 수직적으로 높아진 위치에서 창과 내, 외부의 시각을 이용해 주변 팔달문과 수원 화성의 성곽, 화성 행궁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가로와 마주하는 곳에 마당을 두어 개방감을 높이고, 양옥의 입면은 PC 명판을 사용해 내부 사람들의 움직임과 조각보를 해석한 디자인을 실루엣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한옥의 전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량하고 지형에 순응하며,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를 접목하여 한옥과 양옥의 조화를 통해 성곽 내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했다.

계획부문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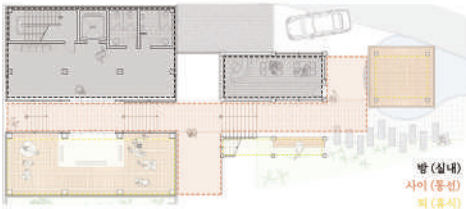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장상

계획부문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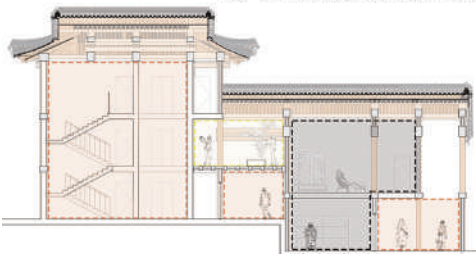
未化 ; 행궁동에 변화를 가져오다.

未化 : 행궁동에 변화를 가져오다.

CONCEPT _ [흐름] 시간과 함께 흐르는 칸의 공간



한옥의 기본 단위인 칸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공간의 사이즈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면적에 따라 다르게 부여한다. 프로그램과 동선을 모두 지붕 아래에 담아 건물 내부를 걸어 가면서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다. 칸은 크게 동선의 역할을 가져 매스를 관통하며 동선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양옥에 프로그램을 담는 실과 퇴의 휴식공간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특징은 단면에서도 나타나며, 칸의 영역을 중첩·교차시키면서 공간에 깊이감을 부여한다.



PROGRAM _ 三間 ; [삼간]



경관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각 요소가 가는 특징에 따라 공간을 구성한다.

계절에 따라 경관을 변화시키는 「시간」, 하루의 변화를 담은 「공간」, 같은 공간에 다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매개체인 「인간」으로 같은 사이트 안에 다양한 경관을 창출한다.

PROGRAM _ 공방거리와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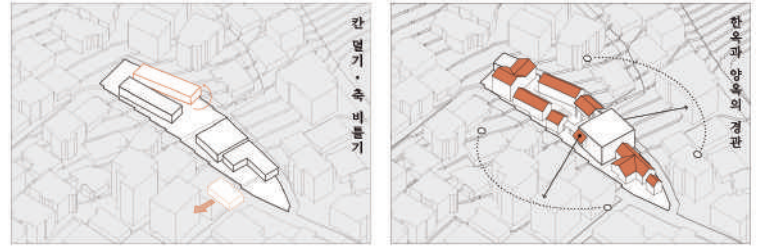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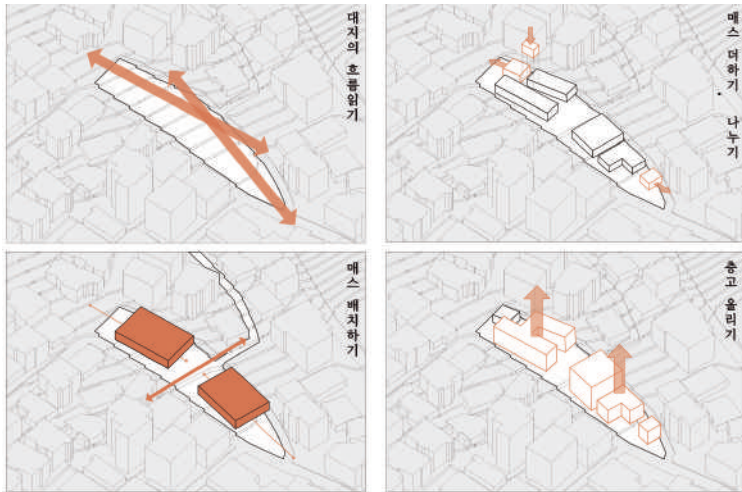


공방거리 내 젤트리피케이션으로 자리를 잃은 공방 예술가들의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주민자치로 이루어지는 공방거리의 특성상, 예술가와 주민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관광·체험 및 작업공간을 주 프로그램으로 둔다. 이에 더해 게스트 하우스 같은 주거공간과 퇴와 마루를 이용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한옥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한국교통대학교

유의현
김주송
권희원
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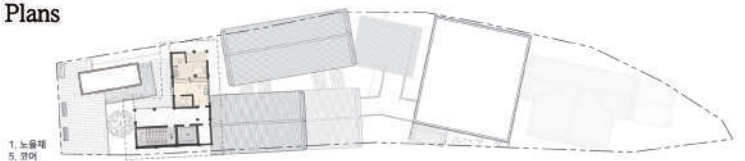
MASS PROCESS _ 축과 흐름을 이용한 공간분할



Site Plan _ Scale 1/500



Pl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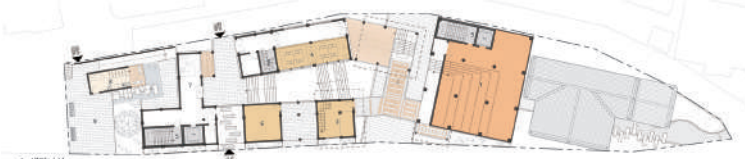
- 1. 노을채
- 5. 코어

4f



- 1. 오피스
- 2. 담뭍채
- 3. 햇살채
- 4. 노을채
- 5. 코어
- 6. 사인아루
- 7. 뒷마당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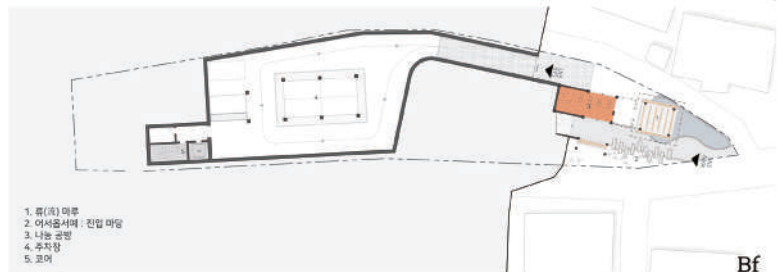
- 1. 세미나실
- 2. 이음교
- 3. 독서공간
- 4. 다같이공간
- 5. 코어
- 6. 개인공방
- 7. 게스트하우스 로비
- 8. 도넛카페

2f



- 1. 카페
- 2. 로비
- 3. 사장실
- 4. 골목길
- 5. 코어
- 6. 독서 공간
- 7. 공유주방

1f



- 1. 휴(休) 마루
- 2. 이음사계 : 진입 마당
- 3. 나눔 공간
- 4. 주차장
- 5. 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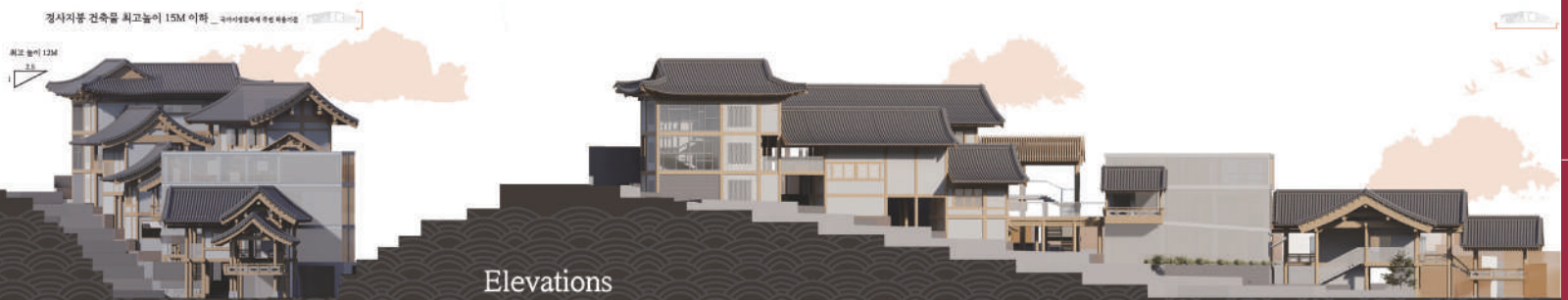
Bf

Perspective Views



계획부분은상

未化 · 행궁동에 변화를 가져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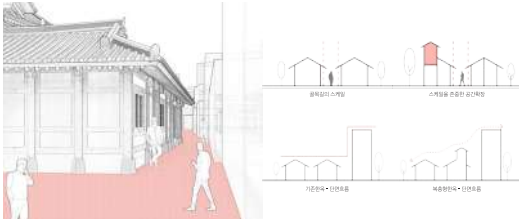
Elevations



7. 골목

골목의 스케일을 존중하는 복층형 한옥

도시안에서의 한옥이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정된 내리크기와 높은 지가의 악영향을 기존 한옥안으로는 오늘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밖에는 이곳의 골목길의 스케일을 깨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였고, 과거의 다채, 구조적 안정성과 생활의 편리함의 기능적 요구가 해결되는 오늘날, 이곳의 복층형 한옥에 대한 기능과 공간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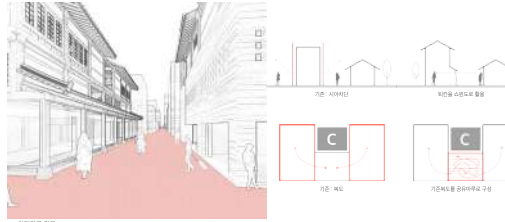


7. 골목의 공간

8. 이면가로

이면가로 활성화의 공유,소통의 한옥

계속해서 승평과 이어지는 이면가로는 도시안에서의 스카이라인에 맞추어 3층의 한옥을 제안하고, 1층부는 RC구조의 한옥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지어, 이면가로를 활성화는 한옥의 특성은 지어진 소원으로 디자인하여 가로의 활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상층부 두 거리의 경우 한옥의 내형과 외부의 개성유치와, 두질 혹은 세입이 서로 공유할수 있는 공용바우의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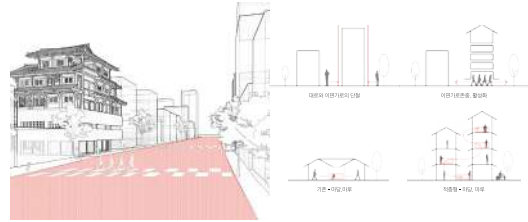


8. 이면가로의 공간

9. 대로

도시의 고밀화에 대응하는 직층형 한옥

정통적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한옥이 상업적 밀도를 필요로 하는 데모에 처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옥의 정체성과 공간감을 간직하는 것이었고, 이에 직면은 공간의 확장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며, 비담과 대담의 공유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시공과 소통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시공의 관계를 흐리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저층부엔 근린생활 시설 및 공방, 상층부는 관광객의 수요와 상업적 이용을 고려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설계하였다.



9. 대로의 공간



옛길을 간직한 돈화문로의 새로운 경관이 되는 한옥

한국의 정체성을 갖는 거리 경관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도시의 경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단일 건축물이 아닌 도시를 이루고있는 길의 여러환경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국적인 새로운 경관을 제시하기 위해 옛길이 잘 보존되어있는 돈화문로 일대를 사이트로, 골목과 이면가로, 그리고 대로의 구조에 주목하였다. 우리가 제안하는 돈화문로의 길에 따른 한옥들은 도시의 밀도있는 땅에 적응하면서도 한옥의 스케일을 유지하고 있다.

골목: 도시안에서의 한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밀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한정된 대지크기와 높은 지가를 갖춘 이곳에 기존 1층 한옥만으로는 오늘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다만 그림에도 골목의 스케일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복층형 한옥의 배치가 결정되었다.

이면가로: 대로변인 돈화문로에서 이미 골목으로의 소동적 자세를 취해주지 않았기에, 이 거리는 계속해서 슬럼화가 진행되어간다. 도시맥락의 스카이라인에 맞춰 3층의 한옥을 제안하며 1층부는 RC구조와 한옥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하며, 이면가로를 향해있는 한옥의 퇴칸은 거리의 소원도로 디자인하여 거리의 활기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상층부 주거지는 한옥의 마루의 개념을 착안하여, 두집, 세집이 서로 공유할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대로: 전통적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한옥이 상업적 밀도를 필요로 하는 대로에 지어질 때 우리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옥의 정체성과 공간감을 간직하는 것 이었고, 본래 한옥은 공간의 확장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착안, 수직적인 마당과 마루의 배치, 중정의 활용을 통해 서로와 소통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시선의 경계를 흐리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구조,프로그램으로써는, 저층부 RC구조에는 근린생활 시설과 공방을, 상층부는 관광객의 수와 상업적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설계하였다.

결과적으로, 돈화문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옛 길들[오늘의 한옥]을 품어 새로운 거리의 경관[내일의 한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간직하고있는 돈화문로

돈화문로는 한양의 중심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있는 이 길은 주작대로의 역할을 하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길이었으며, 특히 이곳은 조선 시대 대로 중 유일하게 옛 폭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길이다. 한양도성도의 기록에서 보듯이 이미 대로-이면가로-골목의 체계들 간직하고 남겨왔다.

한양도성도, 1770



대도(돈화문로)

이면가로

골목

대지현황 / 필지선정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60%까지 가능, 한옥일시 80%완화 규제가능하나 기존건물의 절반이상이 건폐율60%를 초과한 과밀화 대지이다. 반면 용적율의 경우, 600%까지 가능하나 이곳 건축물 대부분이 80%미만으로 매우 낮은 밀도의 저층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적률 상황

건폐율 상황

한옥비율

계획부문 은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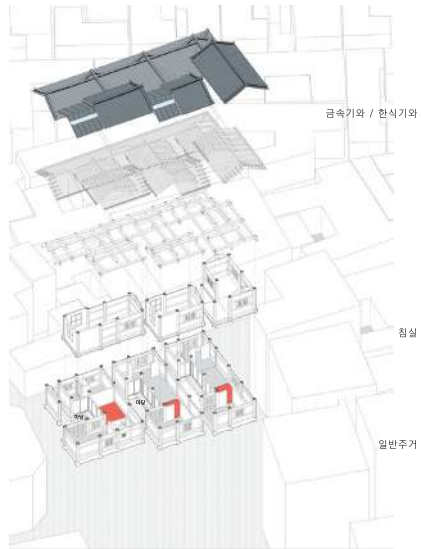
우리의 삶,
우리의 거리,
우리의 경관

명지대학교

이원준

전해인

이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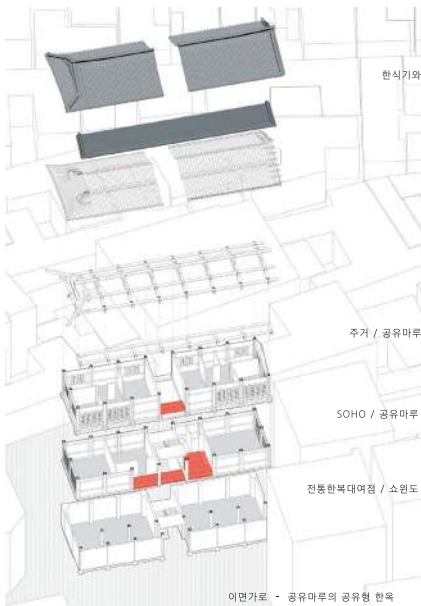


금속기와 / 한식기와

침실

일반주거

골목 - 기실과 마루의 가변형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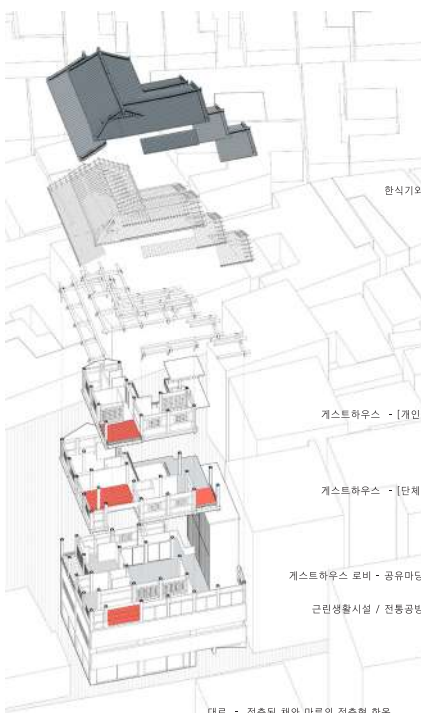
한식기와

주거 / 공유마루

SOHO / 공유마루

전통한옥대여점 / 소원도

이면가로 - 공유마루의 공유형 한옥



한식기와

게스트하우스 - [개인]

게스트하우스 - [단체]

게스트하우스 로비 - 공유마루

근린생활시설 / 전통공방

대로 - 적응된 채와 마루의 적응형 한옥

7. 골목형 한옥
1F - 마당, 거실, 주방
2F - 침실



1층 평면도

축척 : 1/300



2층 평면도

축척 :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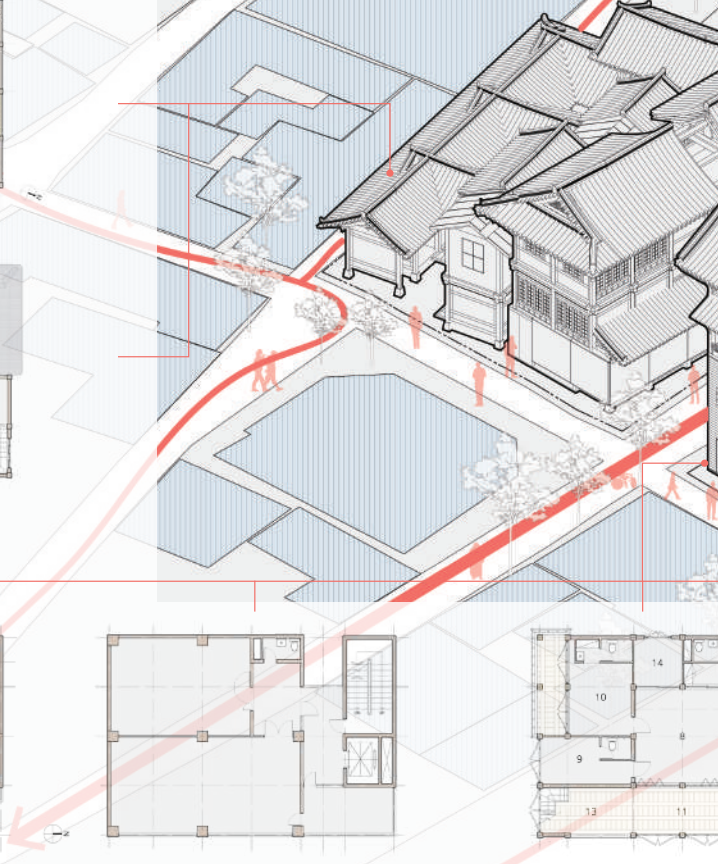
8. 대로형 한옥
1F - 근린생활시설 [상업]
2F - 전통공방, 체험실
3F,4F,5F - 게스트 하우스



1층 평면도

축척 : 1/300

- 1. 침실
- 2. 거실
- 3. 주방
- 4. 마당
- 5. 전통기러한복대여점
- 6. 소원도
- 7. SOHO
- 8. 공방
- 9. 게스트하우스 2인
- 10. 게스트하우스 4인
- 11. 전통공방
- 12. 체험실
- 13. 주차
- 14. 공유세탁실
- 15. 게스트하우스 사무실
- 16. 게스트하우스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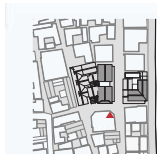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축척 : 1/300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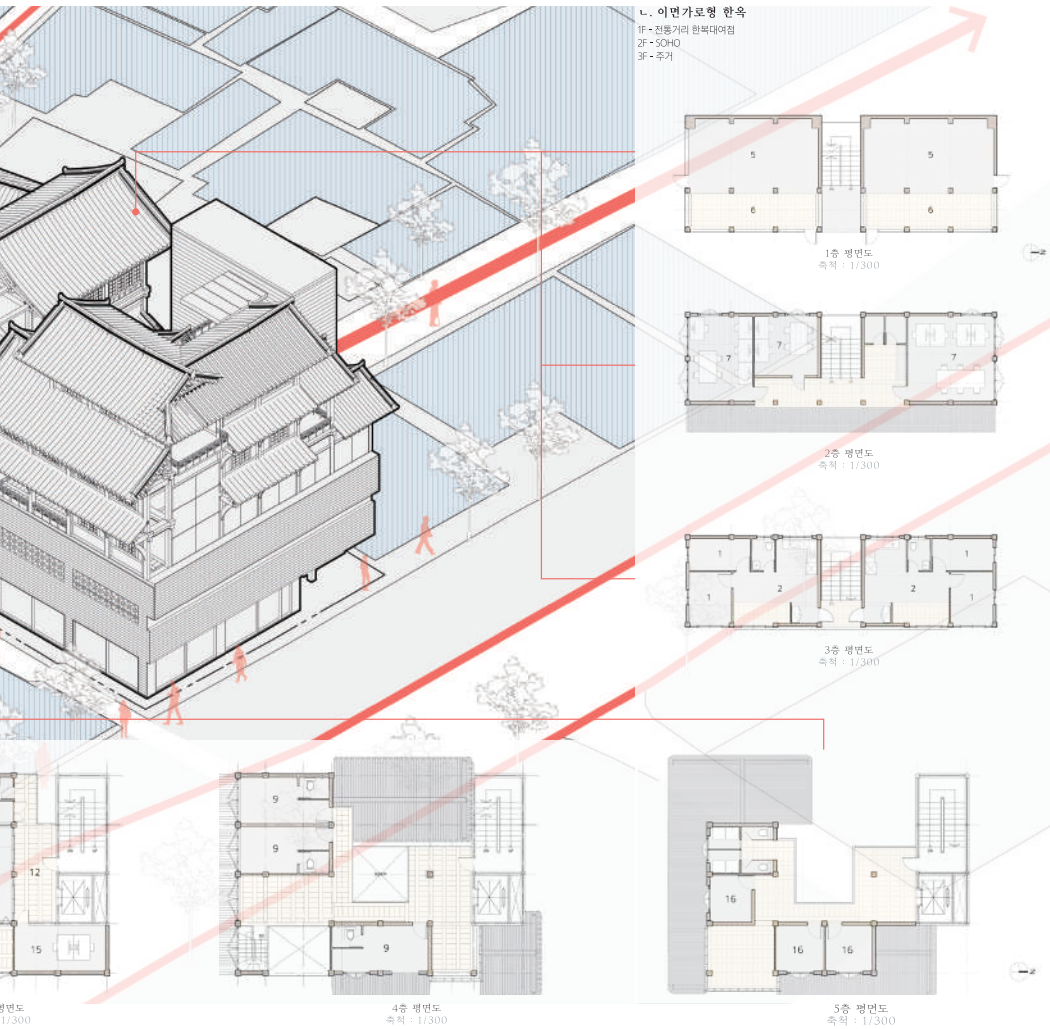
축척 : 1/300



입면도

축척 : 1/300







PROBLEM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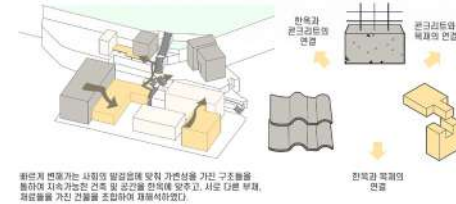
1 유희공간의 존재,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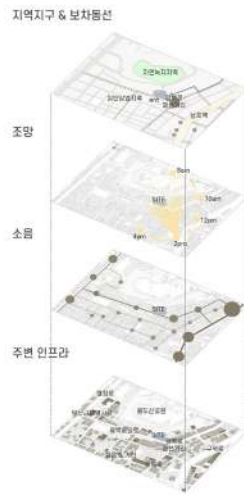
2 유희공간의 재활용, 대지와의 연결



3 한옥과 공간에 대한 재해석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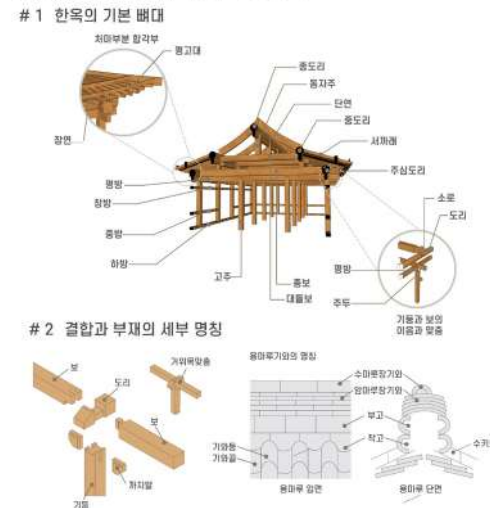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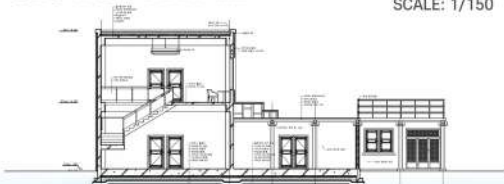
CONCEPT



STRUCTURE DETAIL



SECTION DETAIL



1ST FLOOR PLAN

SCALE: 1/350



2ND FLOOR PLAN

SCALE: 1/350



MAIN ELEVATION

SCALE: 1/350



MAIN SECTION

SCALE: 1/150



푸실

개요

부산광역시 광복동, 광복로 패션거리에 위치한 대지에 현재 Covid-19의 여파로 지역상권이 무너져 가면서 패션거리의 명맥 또한 잃어가고 있다. “기존 한옥의 재생을 통하여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시간의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경관이 되는 한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배경으로 한옥의 재생과 광복동의 지역재생을 함께 함으로 패션거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한옥과 현대의 패션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관을 연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현대의 사회적 흐름을 현대적 기술을 가미한 공간의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한옥으로 재현해 낸다.

사이트상황

1990년대까지 부산 최대의 상권으로 패션특화거리였으나 상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기능이 위축되었다. 얽힌 데 덮친 격으로 Covid-19의 여파로 인하여 상권이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계획의 주안점

사이트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계획한다.

동선

수직동선+수평동선

다양한 기능을 담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저층부 통과동선, 차량·사람 접근동선 주차동선 및 시설 이용동선 등의 입체적 연결/분리되는 수평적 동선과 수직동선을 통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높이의 랜드마크’가 아닌 주변의 건축적, 도시적, 조경적, 사회/환경적 문맥을 반영하여 지역이미지 쇠신을 위한 복합개발 계획안을 제시한다.

프로그램 및 컨셉

1. 유희공간의 흔재

좁고 폐자재들이 쌓여 방치된 골목길, 도로 전면에 위치한 점포 건물 뒤로 사람의 왕래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공간과 건물들을 재활용하다.

2. 유희공간의 재활용, 대지와와의 연결

기존의 연결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문화적으로 재탄생, 유희공간의 새로운 기능이 새로운 장소성을 생성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강조하다.

3. 한옥과 공간에 대한 재해석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의 발걸음에 맞춰, 가변성을 가진 구조들을 규합하여 지속가능한 건축 및 공간을 한옥이란 유형으로 재해석하다.



계획부문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푸실 (풀이 우거진 마을)

동서대학교

김민정
김수혜
박지호
백아론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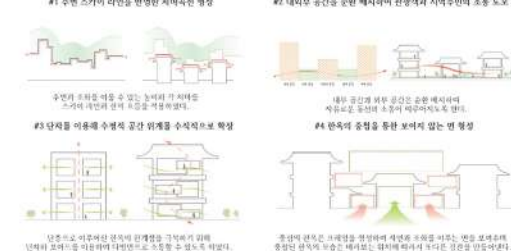
SITE READING



CONCEPT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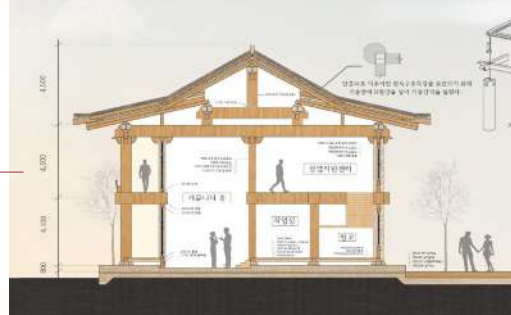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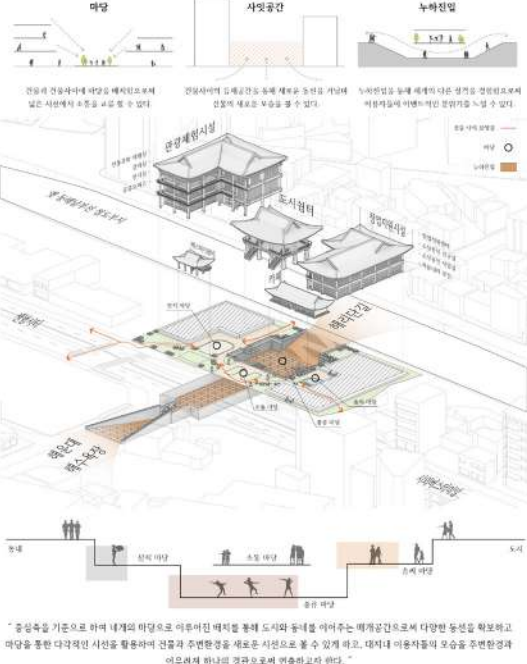
LANDSCAPE PLAN



SECTION DETAIL



PROGRAM



SITE PLAN



FLOOR PLAN



과거를 걷고 현재를 마주하다

근대의 혁명적인 산업화를 이룩해낸 우리나라는 그 대가로 우리의 문화를 내어 놓았다. '한국은 어딜 가나 같은 풍경만 지속된다.' 라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말에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2016년 4,116만 명의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해운대는 이후 지속해서 방문객이 줄어 2019년 1,812만 명의 최저 방문객을 기록했다. 이후 COVID-19가 확산되며 해운대에 터전을 잡고 문화를 이끌어온 소상공인들은 방문객 감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나가던 우리문화가 다시 한 번 퇴색되는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려한 처마곡선과 탁 트인 마루,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제된 한옥의 미는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문화적 특징이다. 다른 곳에 없는 강점을 내세워 한국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우리 문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구해운대역사는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동해선의 주요거점이었으나, 폐역이 된 후 해운대와 해리단길을 단절하는 축이 되었다. 좁은 골목길을 거닐면 맛집과 예술적 거리가 튀어나오는 해리단길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해운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구해운대역사와 철도부지가 막고 있어 발전이 저조하다. 이에 우리는 한옥을 이용해 해운대 도심과 해리단길을 물리적·시각적으로 연결하고 현대적인 도시에 한국의 정체성을 불어넣는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높은 빌딩숲이 들어선 삭막한 해운대의 도로에 활기찬 문화적·사회적 경관을 제시할 것이다. 중앙에 누각을 배치하고 양 옆에 한옥을 두어, 한옥과 고층건물이 형성하는 액자감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시각적으로 연결할 것이다. 장산의 산세에 맞추어 중첩된 지붕은 거리경관에 입체감을 더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관광객,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관을 형성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낸 작은 요소들이 모여 한국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 관광객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통의 창을 한옥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부문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계획부문
동상

과거를 걷고 현재를 마주하다

과거를 걷고
현재를
마주하다

동의대학교

양호준

박인정

조영기

■ 프로그램



■ 사이트 분석



■ 프로그램



동심원 효과; 목포 구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 컨셉 - 확장 가능성



■ 한옥 정체성 유지



■ 경관과 시간



■ 재래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확장



■ 입면도



■ 부분 확대 단면도



■ 단면도



동심원 효과; 목포 구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로그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시장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 시장은 물자 교환과 정보 유통, 사고, 오락, 때로는 정치적 집회 장소로 쓰이며 상업시설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이용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단순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슬럼화를 겪고 있는 시장이 대다수다. 한옥과 시장을 연계하여 그 존재 자체로 하나의 경관이 되어 다양한 유형을 가진 소비자의 유입을 추구한다. 상업 기능과 함께 다양한 행위, 행사가 벌어지던 전통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컨셉 _ 확장 가능성

'ㄷ'자 유닛의 다양한 공간구성 : 마당과 전이 공간의 변화

ㄷ자 유닛을 반복 배치시켜 공간의 중첩과 확대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마당과 전이 공간의 크기와 면적에 변화가 생기고 단순히 길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역시 확대된다.

한 칸에서 유닛, 유닛에서 한 필지, 한 필지에서 두 필지, 그 지역의 일부분으로 점차 확장시켜 한옥단지를 조성한다. 점차 사이트인 목포와 같이 격자형 도시 조직을 갖춘 다른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가게 한다. 한옥 시장, 그 파동의 시작점을 목포로 잡았다.

[프로그램 _ 경관과 시간]

하나의 경관을 창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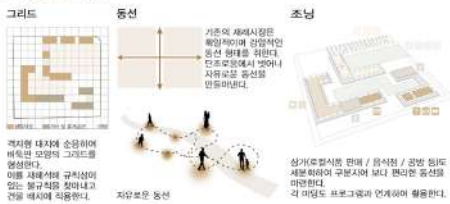
존재 자체로 경관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모이게 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옥이 자리하고 도시에 스며들게 한다. 사이트는 도로와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이목을 끌며, 대지 내로 사람 유입에 유리하다. 그 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슬럼화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시간의 흐름, 세대 물림

한옥은 비교적 노년층에게 익숙한 건물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노력해야 볼 수 있는 건물이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이대에서 쉽게 한옥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여러 세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시장, 놀이마당, 청년몰 등)을 마련한다.

시장은 보통 퇴근 시간대에 마감해,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떨어진다.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야시장, 가막축제 등)을 고안해 하루를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 평면 계획



■ 배치도



■ 평면도 축척 1:600



계획부문 동상

건축공간연구원장상

계획부문 동상

동심원 효과; 목포 구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동심원 효과 : 목포 구도심 재래시장 활성화

목포대학교
박수민

#00. PROLOGUE

물건을 사다 > 세상을 경험하다

- 소비문화의 변화 / 커뮤니티

물건을 사다 - 중고 - 의류 / 소비문화의 변화가 되었다.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은 경험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비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just stuff & money



community information setup stuff



beforetime (-2010)

- 변화된 소비문화에서 중고 의류 / 의류의 변화
물건을 사다 - 중고 - 의류에서 중고 의류의 변화가 되었다.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은 경험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비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nowadays (2010-)



#01. SITE

- 활력동 시장에서 필요시장으로



#02. 레스 개념

서울 종로구 남계로25길 70-9리

43필지 / 위치

상업지역 / 구역

분류지역 / 용도

의 170% / 용적률

의 80% / 건폐율

7,372㎡ / 부지면적

약 15,000㎡ /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 / 건축규모

340 / 주차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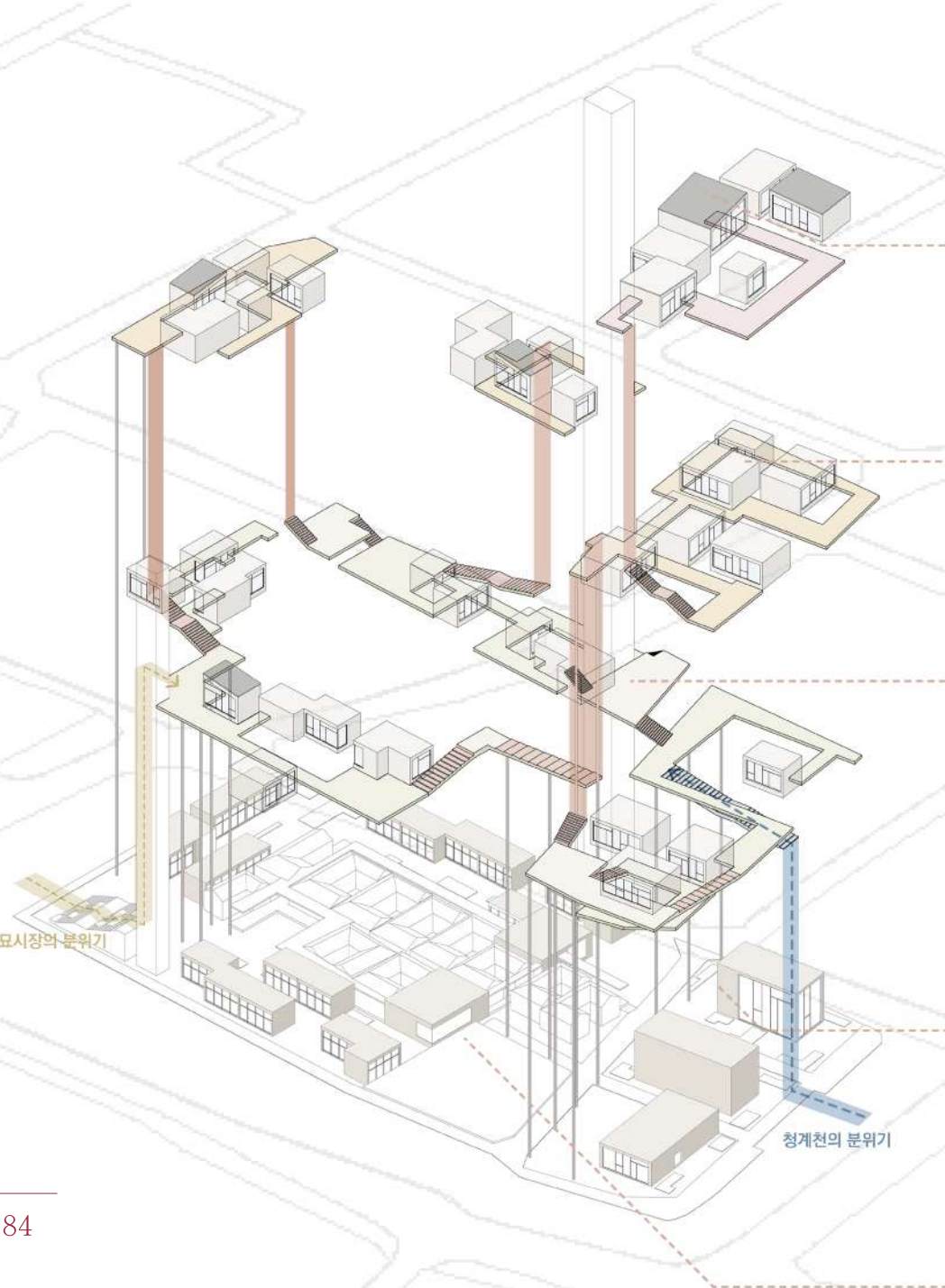
#03. 한옥 DIAGRAM



한옥의 PLATFORM화: 동묘시장과 한옥마을

우리는 많은 한옥마을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다. 이 프로젝트는 숨어있던 한옥을 꺼내놓고 되살려주어, 주변의 수요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숙박과 상업의 침투를 이용해 새로운 마을을 더 친하게 만들 것이다.

#04. 공간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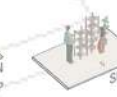
한옥과 담아가기



한옥의 박공지붕을 사선지붕과 루버를 이용해 현대적 매스에 대응



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플랫폼 프로그램

FACTORIZATION 공간



여러차례로 잇달리던 사람들의 동선이 모이는 공간,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짐

청계천변의 문화 흡수



동묘와 담은 문화공간으로의 동선 흡수

한옥 게스트하우스



한옥마을의 공동체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이자, 숙박시설





프롤로그

한옥은 오랜 역사와 조상들의 정서가 깃든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다. 먼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한옥의 흔적들이 남겨져 왔으며, 이제 우리가 그 흔적들을 물려받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현재까지도 한옥마을, 현대화 등 한옥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고층화에 의해 점차 '도심'이나 '익숙함'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과거 한옥의 기억을 되살리고, 현대화에 따른 한옥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옥의 지워졌던 흔적들을 선명하게 되새기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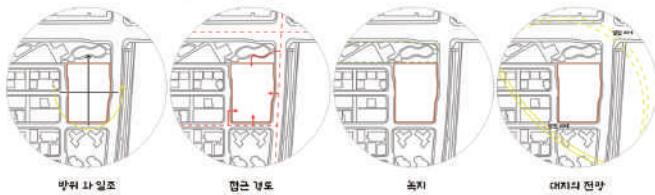
대상지는 삼천이 흐르는 전주 도심지에 위치한 마전술 공원 일대이다. 마전술 공원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체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런 도심 속의 공원을 활성화하여 주변 주민과 방문객에게 자연을 담은 휴식공간과 한옥을 유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계획 방향은 한옥의 형태를 전통적인 형태를 살린 '과거', 현대의 기술을 접합시킨 '현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로 나누고 이를 관통하여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옥요소의 아름다움과 전통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지현황



전주시 완산구 내 전라북도청 근방에 위치한 대상지는 마전술 공원과 삼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전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탄소사업과 함께 전북 투어패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전술 공원에 위치한 마전술 탄소 광장은 탄소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하지만 탄소 광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그 효과는 미미하다.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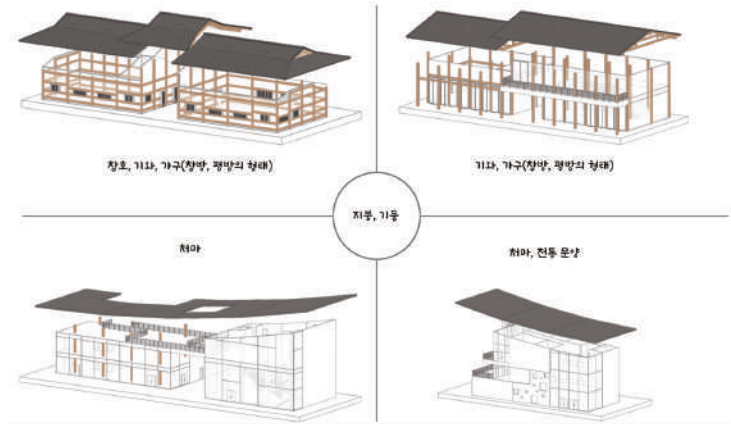


과거 한옥을 사잇돌 받침은 콘크리트의 특징을 살려 건물을 관통하는 두건을 확보하고,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으며 한옥의 시대적 변화를 건물의 형태를 통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관통하는 골목은 따라 각기 다른 건물 형태에 의해 생긴 공간을 통해 계절, 시간, 위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한옥 요소



한옥 요소 적용



한옥, 전통을 둘러 현대를 만나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융건릉 일대 문화센터



SYNOPSIS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안남동, 188-81.
 대지면적: 14,486㎡
 대지용도: 자연녹지지역
 연 면적: 10,814㎡
 층 수: 지하 1층 / 지상 3층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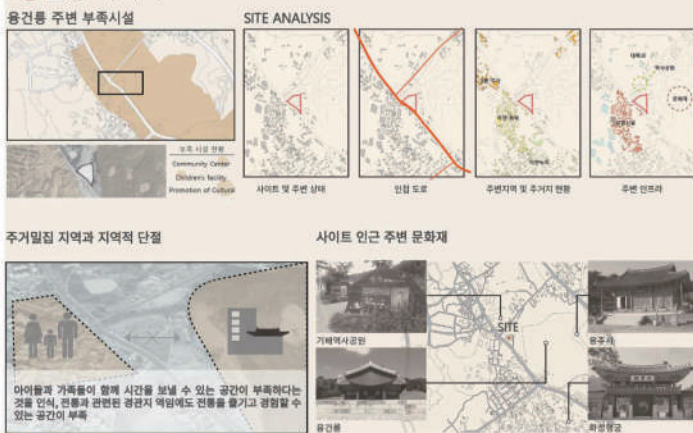
화성시 용건릉 일대, 문화유산 주변 토지개발의 사업성 부족과 주변 경관계획에 따라 전통공간이 담겨 있는, 옛것과 현대가 만나는 새로운 공간을 계획하고 한다. "옛한 전통문화공간 활용"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관련된 체험관 및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을 느끼게 하고 문화재 자제를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 홍보 문화관을 계획하며, 전통 건축의 새로운 보합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치도



- 용건릉은 봉담 IC, 수원 시청에 인접하며 북쪽에는 수원역에 위치해 있다.
- 수원시 문화재 화성행궁과 10km 이내에 위치하여 인근은 문화재이다.
- 30m 대로의 인접, 3km 수원사와 인접한 교통 편의가 발달하다.
- 용건릉 주변에는 역사 공원과 함께 용주사 등의 문화재가 위치해 있다.

용건릉 이야기



주거밀집 지역과 지역적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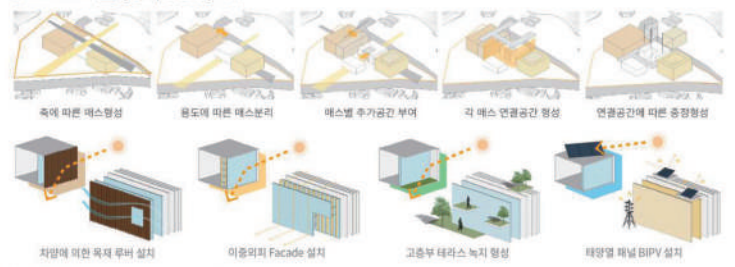
사이트 인근 주변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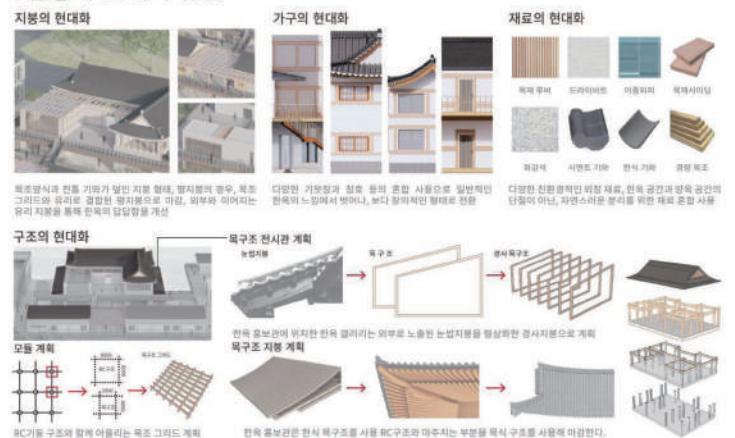
컨셉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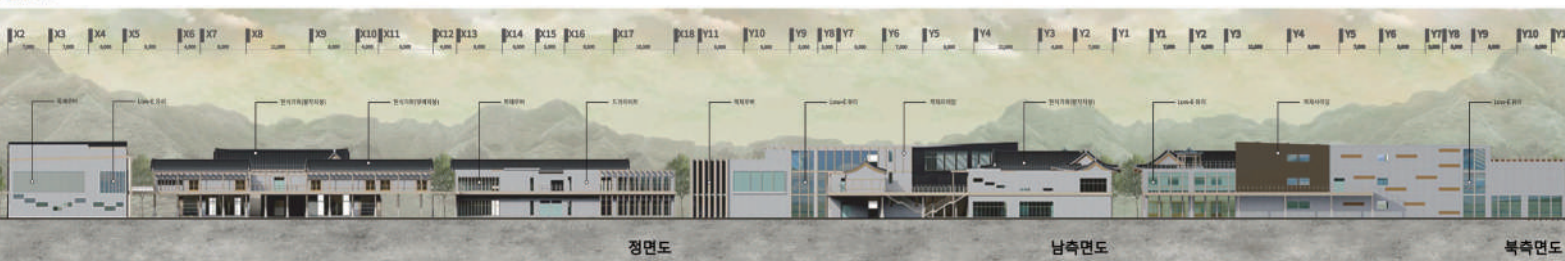
프로그램 (형태/진환경) 계획



전통과 현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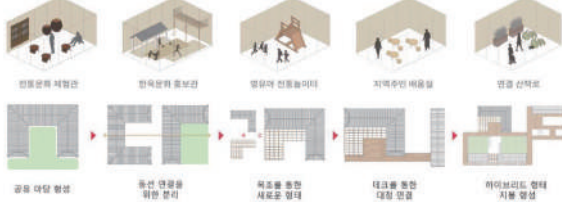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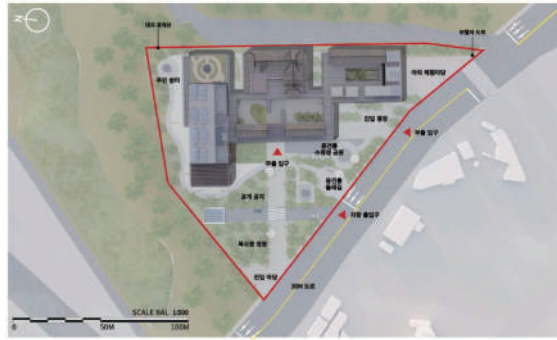
프로그램 (공간) 계획



프로그램 (시설/지붕) 계획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계획부문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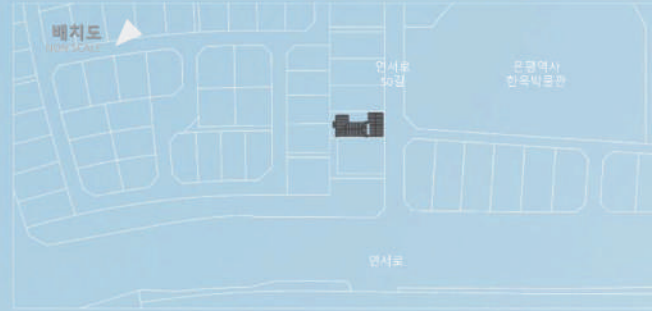
한옥, 전통을 둘러
현대를 만나다.

선문대학교
송영수



한옥 마을 경관 정책적 접근 프로젝트
 도심 한옥마을 현대화 가이드 제안

지금 도심 한옥마을은 현대도시계획 안에서 전통한옥민 단순 배치, 이로인해 생긴 한옥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



雲書樓 운서루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 194-1

절골구조(단열 모듈러 기둥 제안)+전통목구조
 지상 2층, 지상주차 1대
 대지면적 236.20㎡
 건축면적 104.82㎡ 연면적 168.18㎡
 건폐율 44.38% 용적률 7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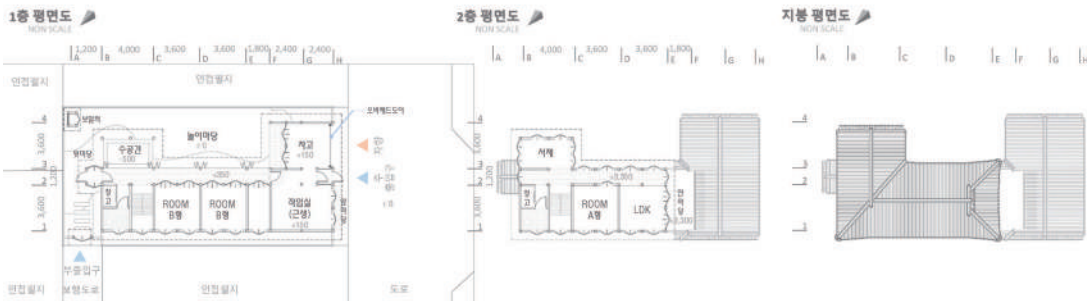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주제: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를 위한 **도심 한옥마을 속 현대화 가이드 제안** 도심 한옥마을 경관 정책적 접근 프로젝트

도심 도심 속에 조성되어 있는 많은 한옥마을은, 영소가 되어 상점, 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도심 한옥마을은 현대도시계획안에서 전통한옥 구성요소 단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지금의 도심 한옥마을은 안목과 안목 사이, 차와 골목, 주민과 관광객의 무질서로 고통받는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한국 현대 도시 안에 한옥마을이 긍정적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이를 위해 현대도시계획안에서 본래 한옥마을이 지닌 전통 계승을 위해 도심 현대 한옥마을 배치가이드, 도심 현대 한옥 평면구성 요소, 도심 현대 한옥 단열 모듈러 기틀을 제안한다.



도심 현대 한옥마을 배치가이드 제안

둘러 배치

도심 한옥이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할 때 보차공간도로와 면하면, 이용객들이 해당 도로를 편리하게 된다. 이에 주출입구의 도로사이에 앞 마당 공간을 형성하여 한옥마을 전체 정주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동등차량 주차공간

도심 한옥이 차량을 상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차량 모두의 수용이 가능한 실내 주차공간을 한옥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방문 차량의 경우 필수로 한옥마을 내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경관계획

도심 한옥이 보행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 도로와 면하는 수형 것 같은 단층으로 계획하여,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스킵이러던 및 공간계획을 준수 해야 한다.



도심 현대 한옥 평면구성 요소

채와 계

전통 한옥의 채와 계 구성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구성해 한옥의 공간 계층



채와 마당

전통 한옥의 채와 마당 구성을 1층 외에 2층에서도 구성하여 한옥의 공간적 질점 유지



위계와 동선

전통 한옥의 솟을대문에서 안채까지 주동선 흐름을 기존의 현대 한옥의 기능을 항상 플라이어씩 확보하며 활용



전통 한옥 구성 요소, 도심 한옥 활용

루(2층 서계) 하부 활용, 필로티화

2층 서계(사당계) 하부를 활용, 소형 물놀이장 등 공간 형성



윗마루 수평동선 경로 활용

물당도어를 활용하여 사당계 선덕에 따라 윗마루를 복도처럼 활용



가상 건축주 요구 반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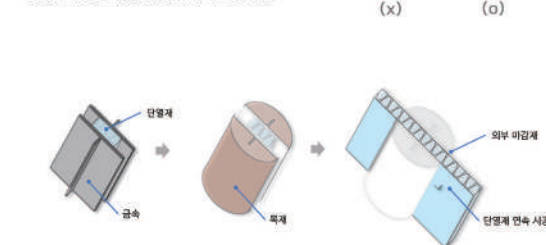
전면 근생 시설 활용, 향후 게스트하우스 운영, 독립된 노후 부부공간



현대 한옥 단열을 위한, 도심 현대 한옥 단열 모듈러 기틀

단열 연속 기틀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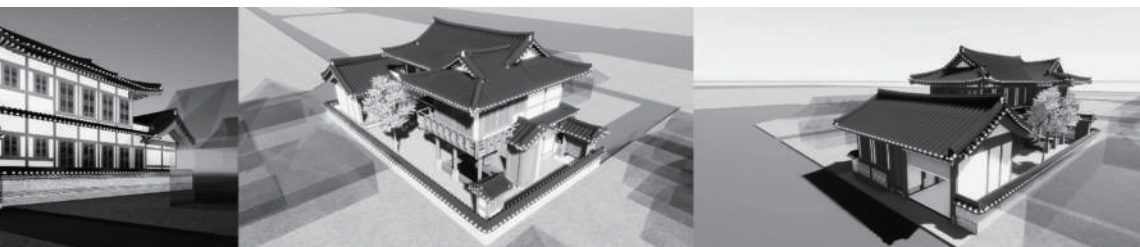
단열재가 끝가지 없게 H강과 목재 기틀 제안



도심 한옥마을 경관 정책적 접근 프로젝트

도심 한옥마을
경관 정책적 접근
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19341
조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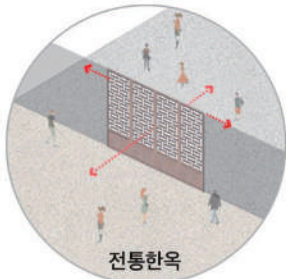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가길 1외 14필지 (이태원동)
 규 모 : 지상 3층 / 지하 1
 대지면적 : 2,641m²
 연 면 적 : 1,356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목구조
 용 도 : 문화시설

이태원에서 한옥찾기

한옥의 현대적 해석



전통한옥

창호를 통한 공간과 경관의



현대

벽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공간과 경관 형성



현대

벽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공간과 경관 형성

평면도 _ 척도 1/700

4층_ 게스트하우스

- 1-2인 게스트 하우스
- 3-4인 게스트하우스
- 식당
- 테라스
- 새론마당

2층_ 책방

1. 마켓
2. 마루
3. 공방
4. 휴게공간
5. 모꼬지마당

단면도 _ 척도 1/200



3층_ 중정

1. 책방
2. 식당
3. 전망대
4. 코어
5. 다남길마당

1층_ 공방

1. 마루
2. 안내소
3. 카페
4. 책방
5. 공방

계획부문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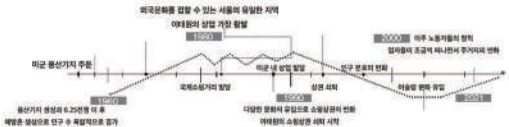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이태원에서 한옥 찾기

남서울대학교
정연운
장재혁
이예은

머리말_이태원과 한옥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이태원은 다양한 외국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태원이 가장 활발했던 70~80년대 이후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적어지고 상업시설도 쇠퇴하기시작해 이태원은 점점 침체기를 맞게 된다.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이태원에서 우리는 '한옥'이라는 한국의 전통 가옥을 통해 도심에서 쉽게 느낄 수 있던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끼고, 한국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경관을 통해 현대와 전통이 조화 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정서적인 매력들을 외국인들에게 알릴수록 더욱 가치있고 의미있는 이태원의 모습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문제점_이태원 거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통과 현대_디자인과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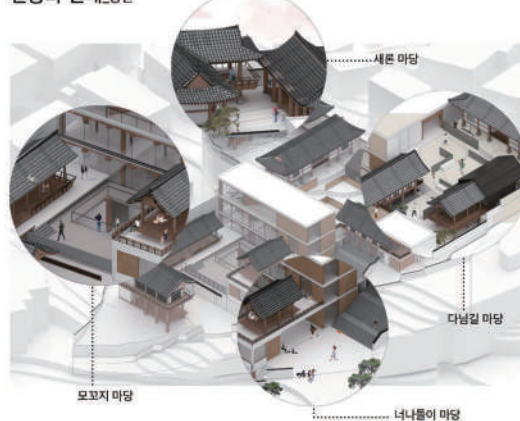
부분 투시도_ 내부,외부



대지 분석_대지현황



전통과 현대_공간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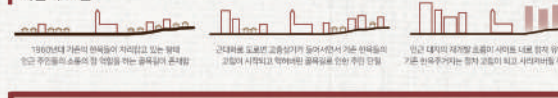
종로구도 및 도시계획수립 당시의 도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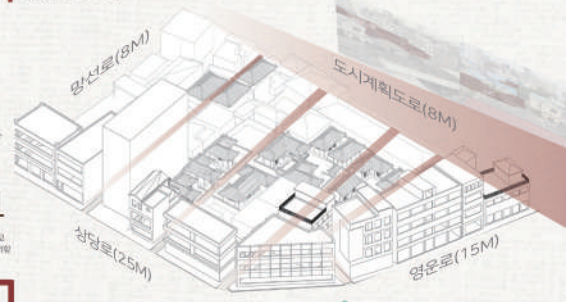
대상지 분석



개발의 흐름



대상지 건물 현황



**도심 상업지역에 면한
한옥밀집주거지의 블록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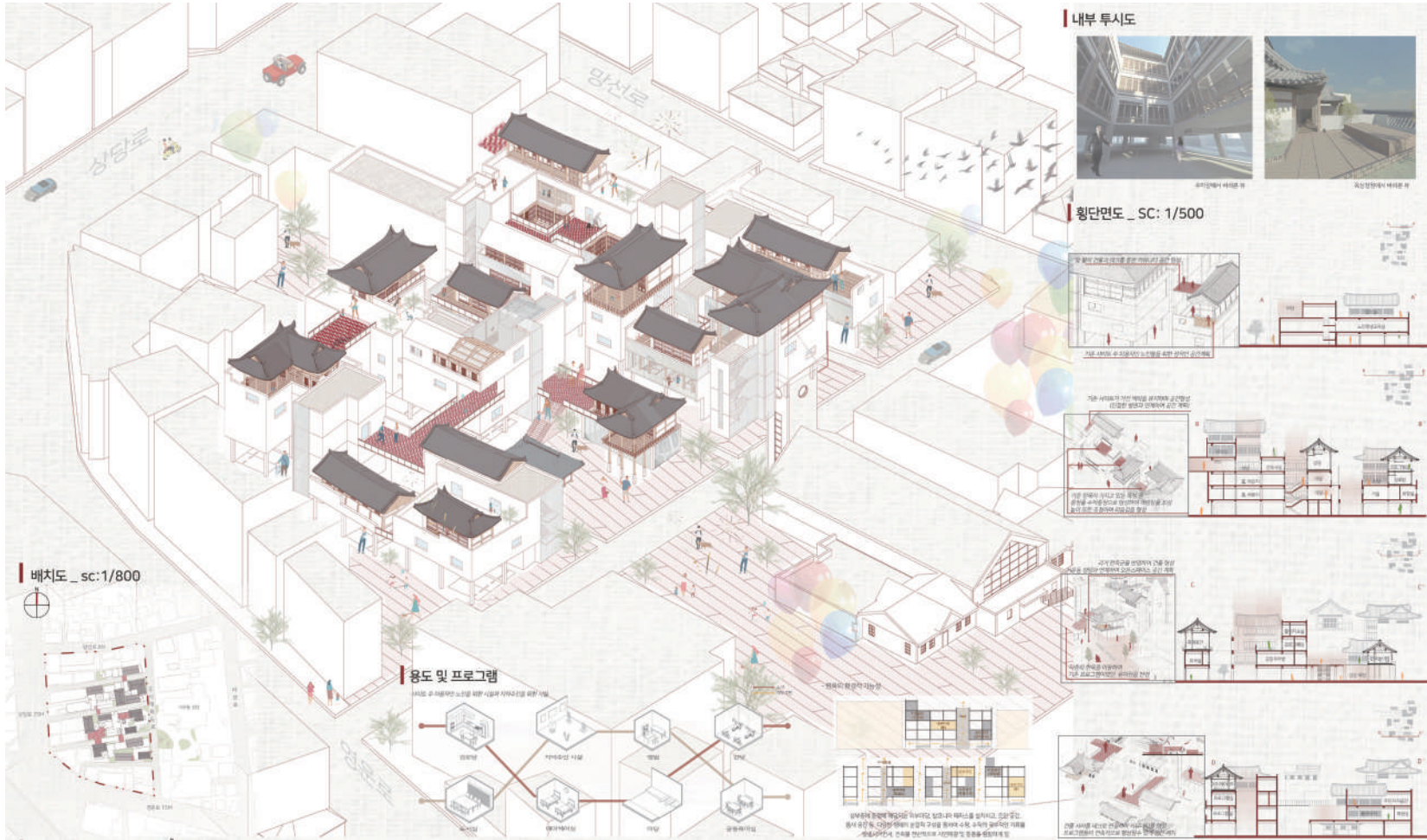
노후화된 주거지개선

기존 도시조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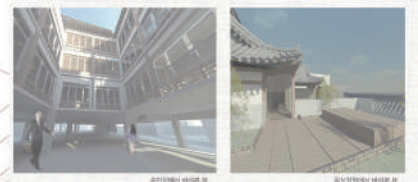
기존 한옥군이 가진 특성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개발방안 제안

한옥 특성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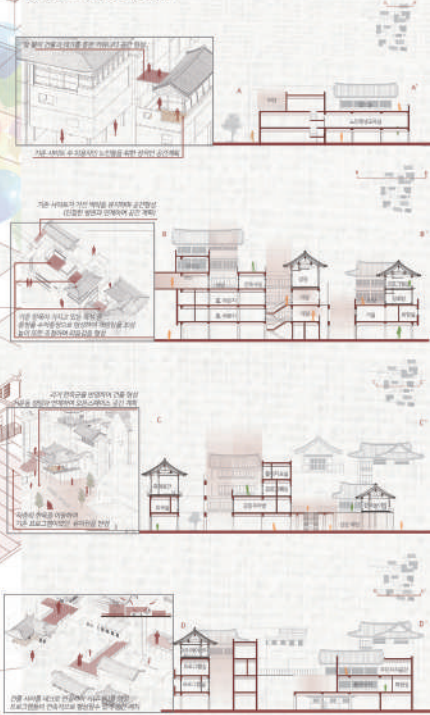
새로운 경관의 창출



내부 투시도



황단면도 SC: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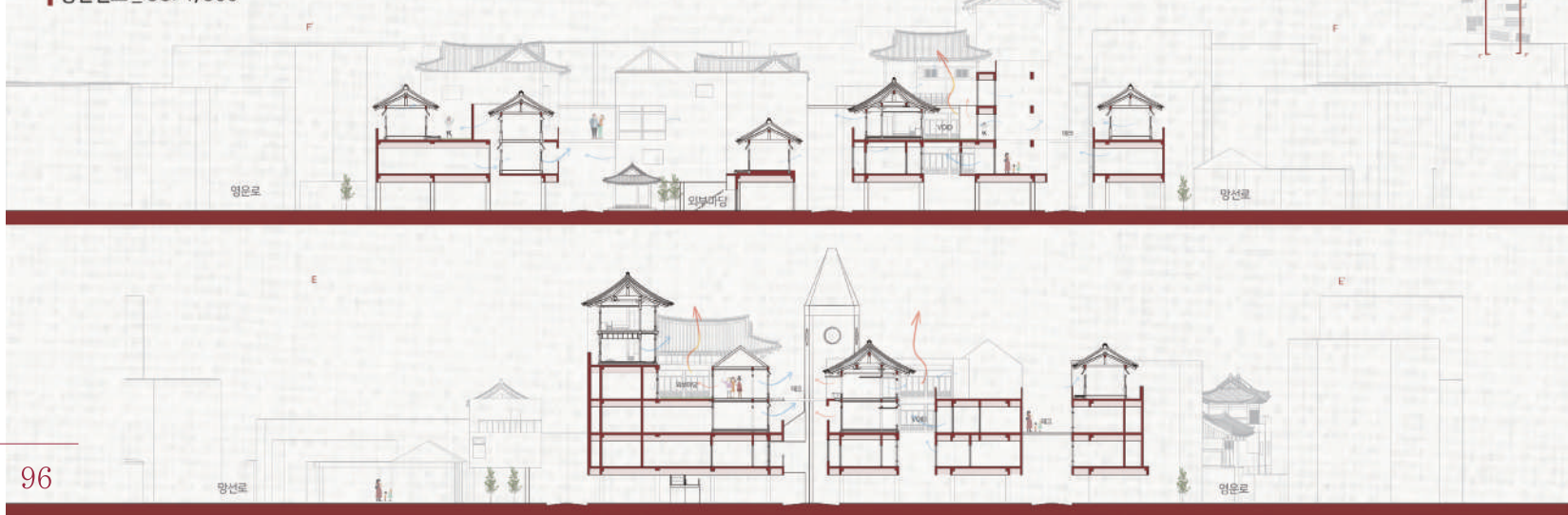
배지도 sc:1/800



용도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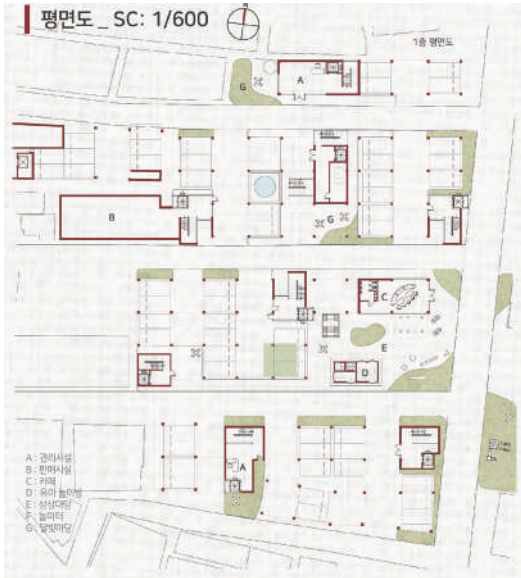


중단면도 SC: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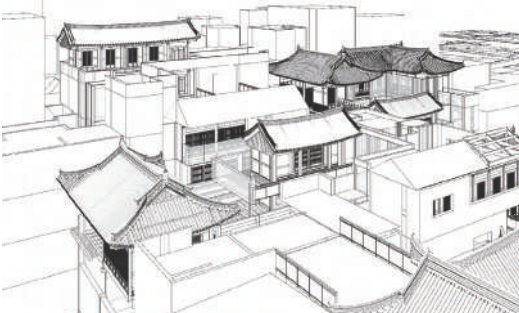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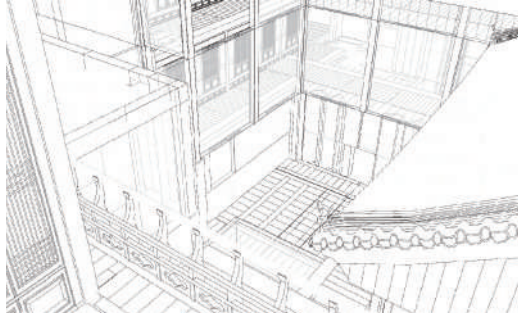


내부 투시도

외부 경관



내부 경관



청주대학교
박서윤

도시[-행랑]

행랑, 도심 속 새로운 경관이 되다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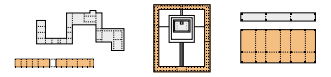


현대 도심 속 건축물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절 되어있다. 그 속의 프로그램 또한 어우러지지 못하고 단조로운 경관만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는 획일적인 공간에 새로운 '층'을 만들어 도심 속 경계를 흐리고자 한다. 동대문은 외딴 섬처럼 위치하고 있다. 의류나 신발 가게 등의 상업공간은 동대문의 역사적 맥락과 상충되고 있다. 우리는 그 경계를 해소시켜 줄 '층'으로 행랑을 배치하여 주변과 어우러진 새로운 경관을 만들고자 한다.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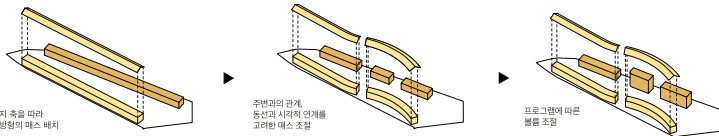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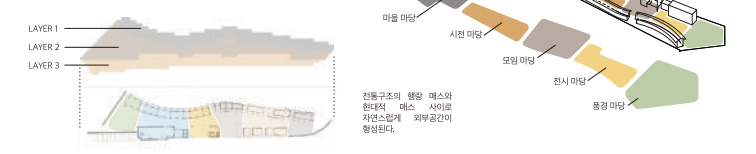


행랑은 경계부에 위치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룬다. 주거 한옥의 행랑채, 공결의 행각, 육전거리의 시전행랑 등 다양하지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였다. 행랑이 가진 유연성을 현대 도시에 새롭게 접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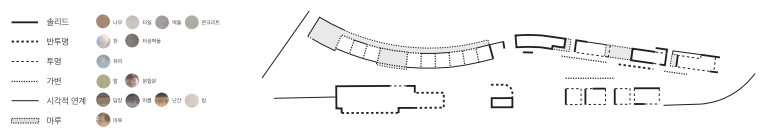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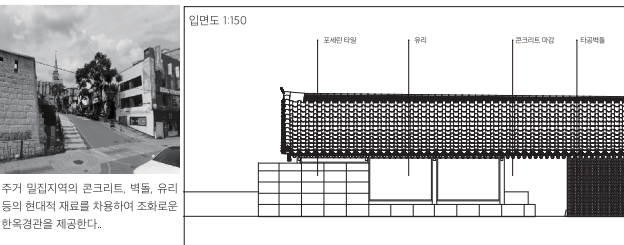
LAYER |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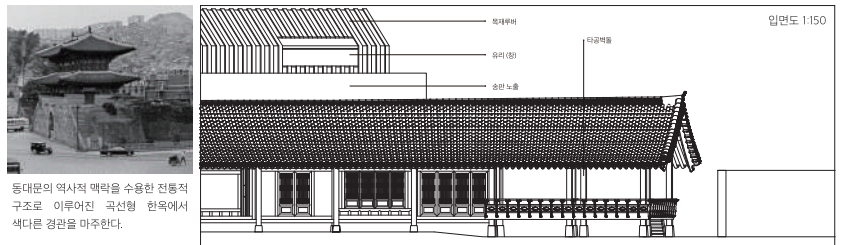
MATERIAL 전통한옥의 가변적인 요소들은 공간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며 세밀한 층위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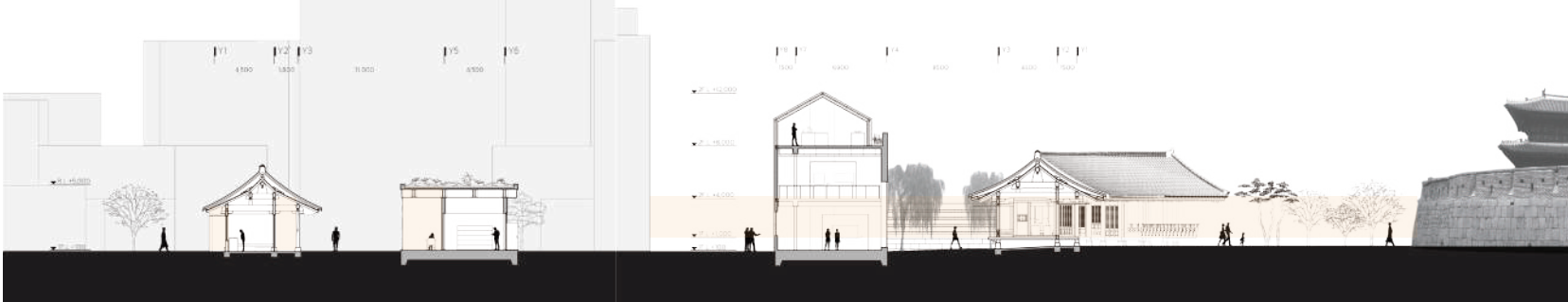
EXPANDABILITY 한옥 창호의 차폐는 다양한 영역의 확장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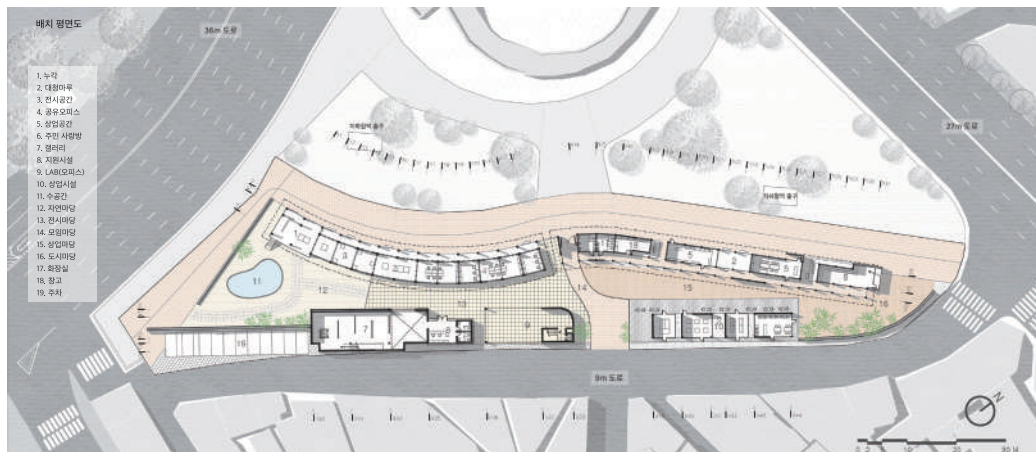


주거 밀집지역의 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의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한옥경관을 제공한다.



동대문의 역사적 맥락을 수용한 전통적 구조로 이루어진 곡선형 한옥에서 색다른 경관을 마주한다.





계획부문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도시「행랑」;
행랑, 도심 속
새로운 경관이
되다



강민희
김효연
이하늘



유형 1번 외부 투시도, 공공+상업 한옥의 변형

한글 조형성을 활용한 도시 변형 제안

분절을 통한 전통과 현대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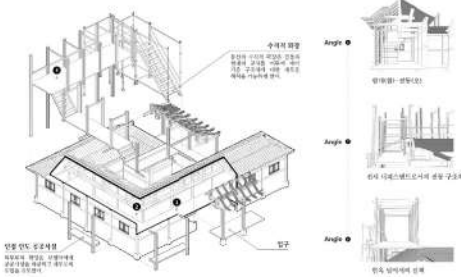


한옥과 서예

전통적 산문인 서예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글자와 그림의 경계에 서있다. 글자가 내포하는 의미가 해제되면서 서예는 점차 읽는 예술에서 보는 예술로 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한옥 또한, 과거의 가치를 담은 그릇보다는 과거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8 서울한옥절원>으로 인하여 하나의 정서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된 한옥에 대한 교감을 시각화한 이 프로젝트는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을 연결하러 비유의 경관을 제시한다.

현대 한옥의 용도별 분절에 따른 변형 유형

유형 1번, 현대 공공+상업 한옥 (문화상회 갤러리, 계동 73-6)



유형 2번, 현대 주거 한옥 (군집 주거형 개인 한옥, 계동 85-15)



유형 3번, 공공 한옥 (한옥체험관 안내소, 계동 85-7)



유형 1번 내부 투시도, 공공+상업 한옥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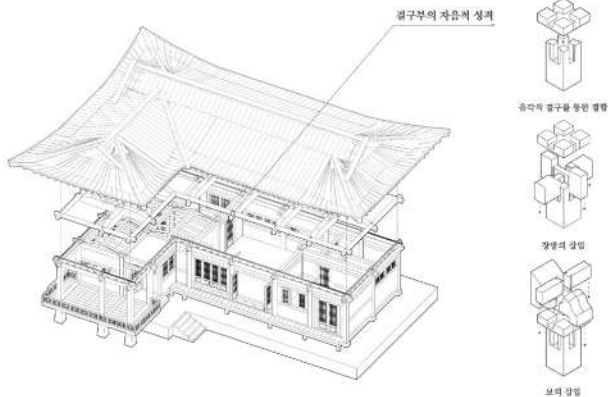


유형 3번 외부 투시도, 공공 한옥의 변형

한옥의 가구식 구조가 가지는 한글 자·모음의 조형적 특성

한옥 속의 한글 조형

가구의 구조 (Post-Lintel)인 한옥의 전체적인 형태와 방향은 기둥과 보의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 부재 단위로 보게 되면, 기둥과 보가 집하는 부분에 음각의 결구가 존재하여 구조체를 결속한다. 작은 단위로 분할한 한글 글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모음의 역할과 조형성은 한옥의 구조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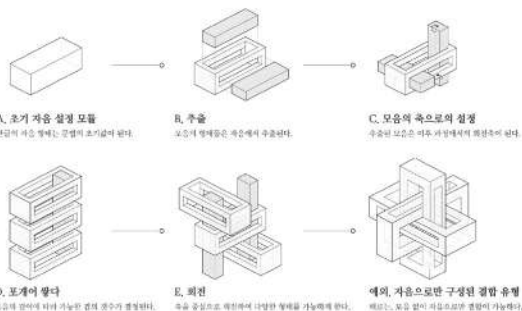
한글 조형이 적용된 신규 구조 방식

한옥 구조체가 지니는 한글 자·모음의 조형성과 음각의 결구법에 착안 및 재해석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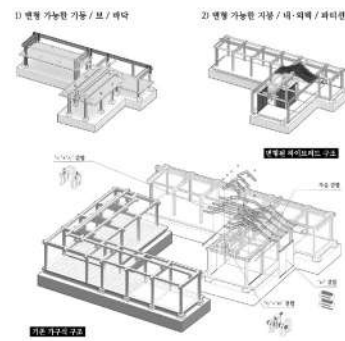
한글의 자·모에서 착안한 하이브리드 구조 시스템의 형태 문법 (Shape-Grammar)

형태 문법에 따라 재해석된 하이브리드 구조 시스템의 가능성

형태 문법 (Shape-Grammar)



재해석된 구조 시스템의 변형 가능성



북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변형

대상지 1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89



용도별 분절에 따른 변형 유형 단면투시도

유형 1번, 공공+상업 한옥



유형 3번, 공공 한옥



계획부문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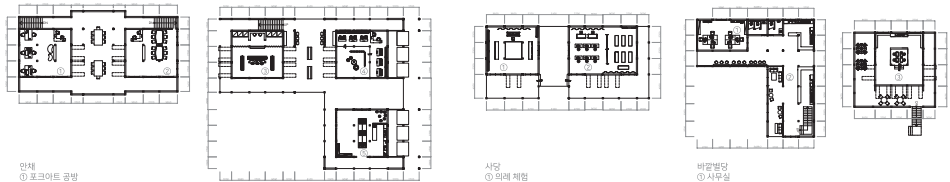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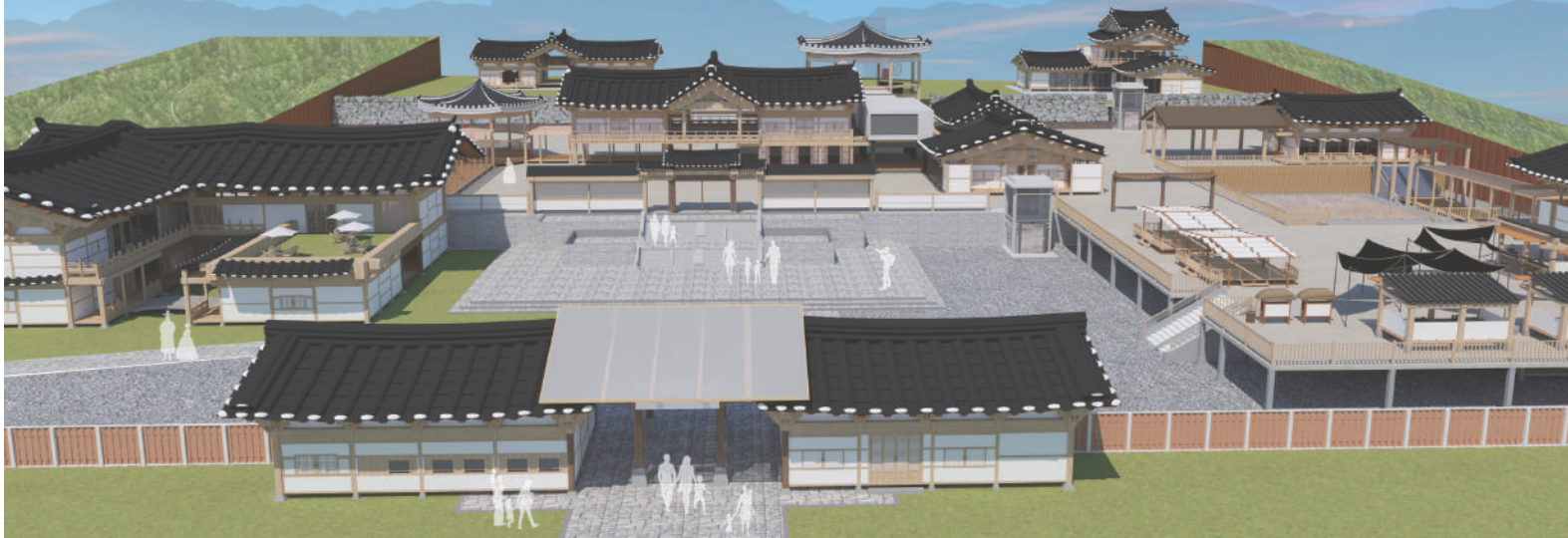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글 조형성을 활용한 도시 변형 제안

홍익대학교
임성현

連, 경험으로 잇다

한옥의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 놀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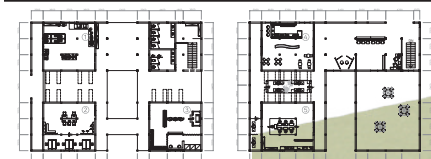


- 안채
- ① 로크아트 공방
 - ② 수공예 공방
 - ③ 남자간담대어
 - ④ 여사서도 공방
 - ⑤ 전통음식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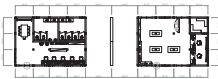
- 사랑
- ① 의의 체험
 - ② 여집 교목

- 비밀정당
- ① 사무실
 - ② 음식실
 - ③ 전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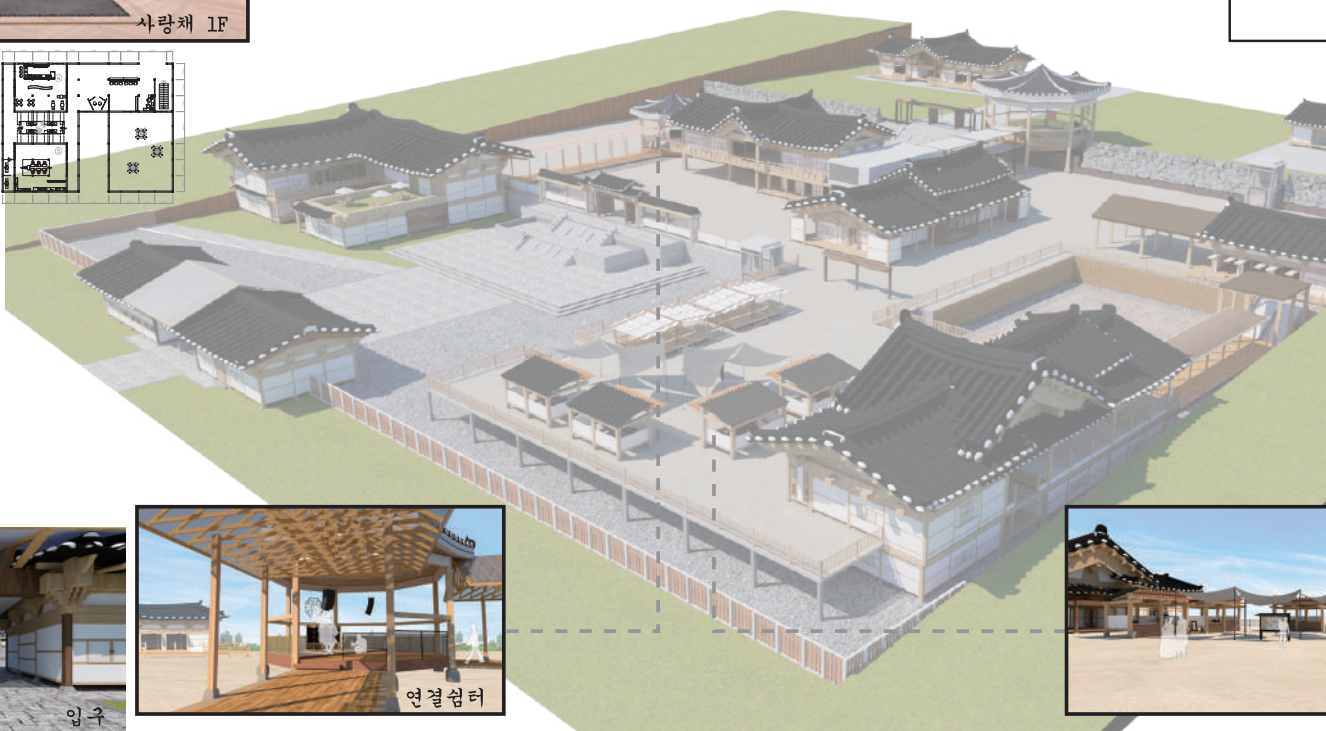
배치도



- 사랑채
- ① 분지 체험
 - ② 시어 체험
 - ③ 남자간담대어
 - ④ 카페
 - ⑤ 디도 체험



- 영당채
- ① 카페스
 - ② 기념품 판매



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읍
2010년대 민들어진 도시로 전통 관민사상 부족
한구간에만 중국, 일본, 서양 문화 유산
한복마을, 유물마을 등 각종 사당, 절터의 추진 중
전통과 활기에 대한 높은 수요

**수문적 위계를
대지의 경사 활용으로
수직적으로 해석**

경사별 배치, 수직 단면, 전통의 유적, 고운 유적

매스 프로세스

경사를 따라 배치 중 형성, 전통적 형태에 재해석, 승운화로 수직적 확장, 매스 수중로 공간 공유, 재의 재이용, 주변과 이어지는 공간 제안

한옥의 공간적 특성

공간의 위계성, 재분화, 안과 밖의 연속성, 마루, 마당

유교 사상에 따라 신분, 성, 세대에 맞춰
재마다 고유의 역할과 기능 수행

방과 바깥을 연결하는
중간 공간

각각의 재를 이어주면서
방의 기능을 대신하는 공간

안채, 사랑채, 중문, 사당, 행랑채, 마루, 방, 마당

한옥의 역할

관계의 변화, 대가족, 거주, 방문객, 놀이

주생활 행위
시차, 행사, 예절, 공부

행위의 변화, 놀이 행위
다양한 체험과 행사, 공연

생활 공간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공간의 변화, 체험 공간
각 재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이해

경험으로 있다, 재의 전통적 기능을
높이로써 경험

관심을 있다, 신선함과 재미를 갖춘
공정적 인식 변화

재를 있다, 기존 독립적 배치에서
매개 공간 확장으로 연결

활용 전략

[채마다 역할부여]

사당 예절 교육 의례 체험	별단 커피 공간 풀잎 공예	행랑채 사무공간 / 연례 전시 및 기념품 판매
안채 한복 대여 / 공예품 만들기 퓨팅 클래스 / 서지	사랑채 한복 대여 / 스화디오 전통문화 체험 / 다도/차예 한지/서예 체험 / 전시	
마루 공연 및 시용 실내 전통공간	마당 여의 공간 및 체험 정터 및 행사	

매개 공간 활용

[매개공간 이용]

방, 마루, 마당, 공용 공간, 대용마루 역할 확대, 마당, 견련방

계획부문 입선

건축공간연구원장상

3rd Floor
연결실터, 창고, 화장실

2nd Floor
안채, 안마당, 창고, 화장실
2F 사랑채, 뒷마당, 화장실
2F 바깥사랑채, 연결실터, 정터

1st Floor
행랑채, 사랑마당, 직원휴게실
사랑채, 놀이마당, 창고
바깥사랑채, 화장실

바깥사랑채/안마당
① 직원휴게실
② 오피스 스튜디오
③ 풀잎 스튜디오
④ 서점
⑤ 전시실
⑥ 전통문화 체험
⑦ 풀잎 공예

장터

전망대

배경

전통예술 공연 관람, 전통문화 체험 경험, 최근 한복을 입은 시기

본적 없이, 본적 있다

2년 이상에 한번, 1년제 한번,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없다 86%, 5년 이상, 1년 이상, >1년 전

응답자의 49% 특히, 20대 미만의 86%가
전통문화 체험 경험이 없다고 응답

인식 변화

특정한 날에서 일상으로, 특별한 날에서 일상으로

수동적 관람에서 능동적 관람으로

원단위의 위장 마디

과거와 달리 현재에 와서는
신선함과 재미를 갖춘 놀이로 긍정적 인식 변화

제안

전통 요소를 활용한 놀이, 콘텐츠 테마 공간

한옥 체험관, 놀이-공연장, 특색 공간

디자인 요소

[전통 한옥] 구조: 마루, 기둥, 보의 직선을 통일하여 구조 시각화, 프레임 안에 있는 그림자형 인식 유도, 전통 생활을 시각적으로도 경험

[현대 건축] 한옥의 구조와 함께 현대적 재해석 사용, 지붕구조 노출, 낮은 구조, 재료 이질감

공포: 전통적 형태 공로를 현대적으로 단순화

자연의 곡선: 이후 지붕으로 확장해 감에 따라 모던한 선의 형태에서 자연의 곡선 형태로 점진적 변화, 모던적 직각

한옥의 건축적 이해,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공간, 현대적 모델 제안

[특색 요소]

입구에서부터 재 배치를 한눈에 파악, 실례를 통한 이동으로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 각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체험 코스의 역할

상대 공간감과 여의 마당으로 확장

연, 경험으로 있다

울산대학교
위현규
박나운



영상
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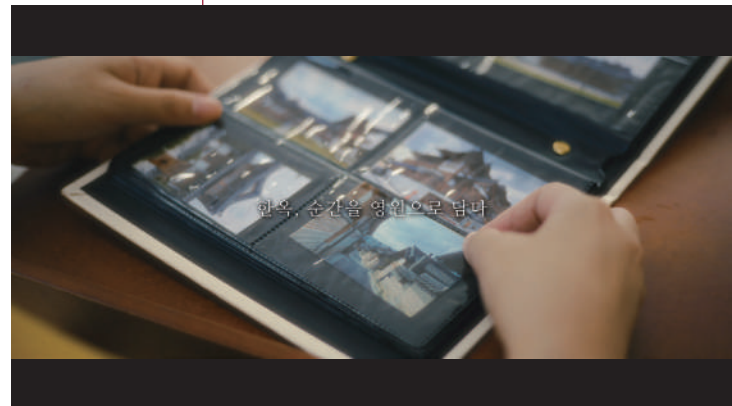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옥으로(路)

수상자 고려대학교
 이은학
 강원대학교
 김재우
 숙명여자대학교
 김명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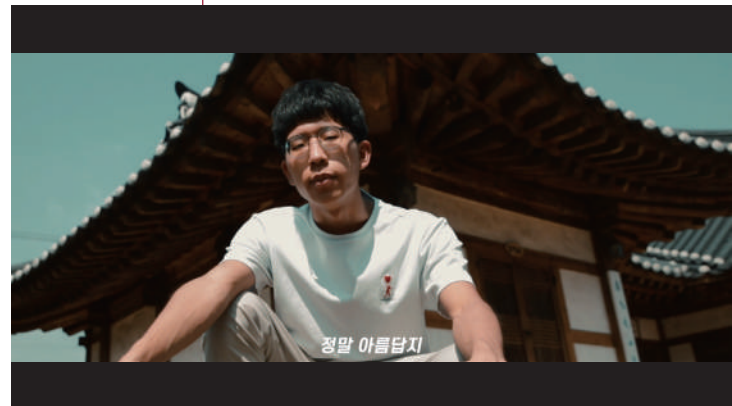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옥의 멋

수상자 동서대학교
 안영진
 나재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은상

한옥 : 休

수상자 WITMEDIA
박재혁
박재범
최지민
고도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은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옥을 일상에 담다

수상자 **홍익대학교**
 정수민
 최지후

건국대학교
 오미랑

광운대학교
 조형준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동상

아름다운 한옥

수상자 차호석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이 담겨 있는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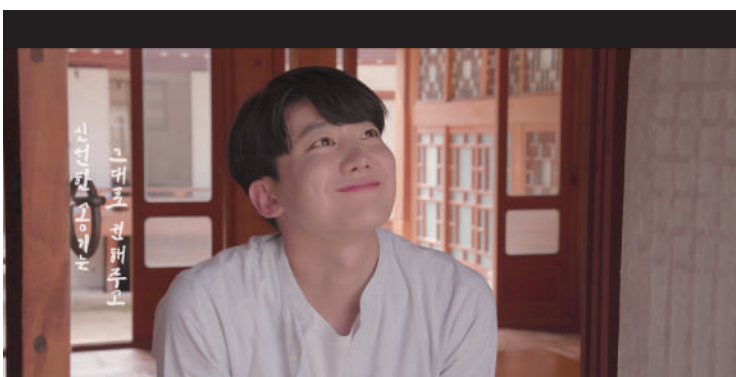
서울관광현역 : 필요동 흥인의 거목

동상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한옥

수상자 단국대학교
 장성주
 김재원
 이현정
 정다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백인제가옥
Jongno-gu, Seoul

입 선

한옥 :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

수상자 모내기필름
 김형석
 양진호
 천효승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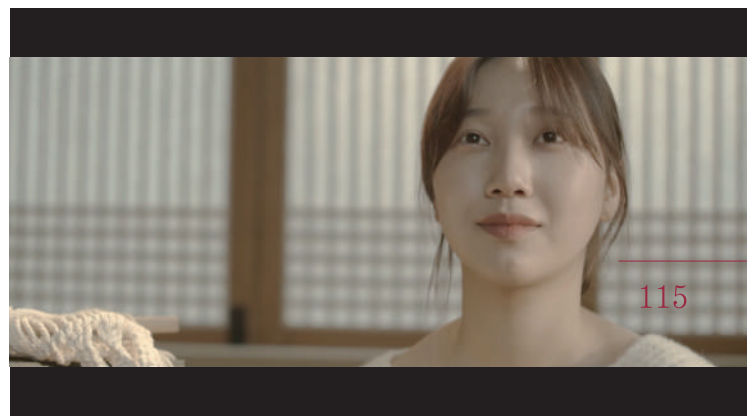


입 선

기억의 고향,
한옥

수상자 이채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입 선

한옥 : 고즈넉-이

수상자 청주대학교
 양재학
 박은성
 임유성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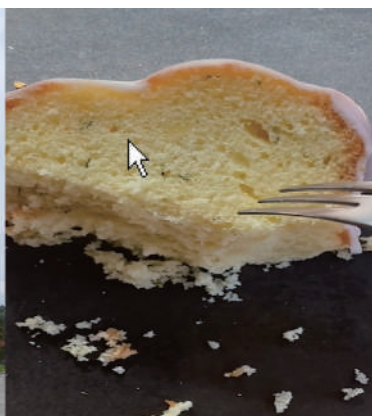


입 선

우리는 한옥에
살고 있나요?

수상자 고려대학교(세종)
 조수민
 박서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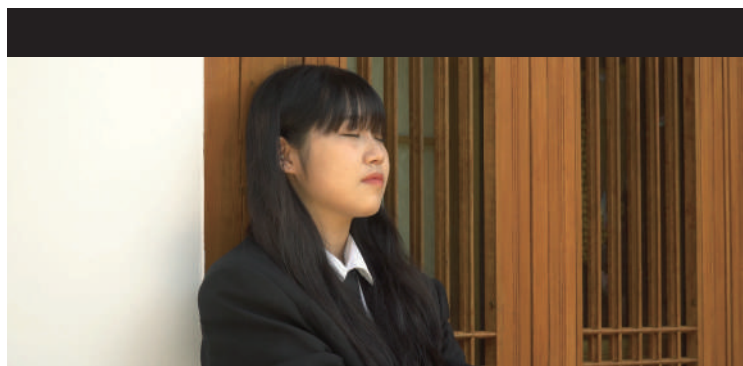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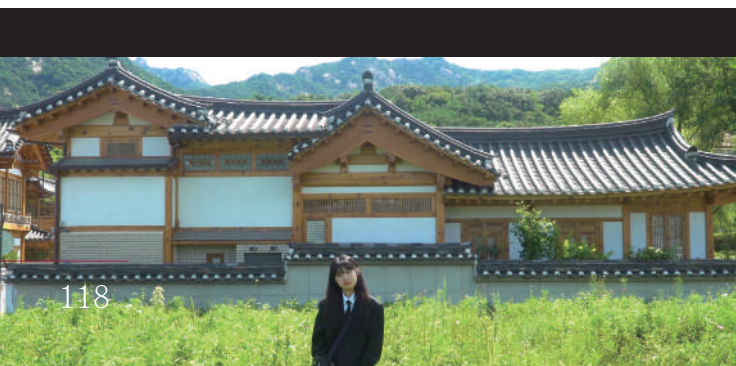
입 선

한옥, 일상 속의 심표

수상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김태은
정미영
김동규
공지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입 선

한:며들다

수상자

청연
장혜민
김보라
김애경
김혜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입선

남도 한옥

수상자 김재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청마루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된 한옥의 건축요소.
바닥면의 습기가 닿지않고 바람을 통하게 한다.
(국가한옥센터)

입 선

좋다 좋아,
하이 한옥!

수상자

건국대학교

정경진

김시한

이진선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 이 집 진짜 멋지다~ 이걸 어떤 집이야?

입선

11살, 나와 한옥의 첫 만남.

수상자 전주대학교
우경은
최민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